

M45-12 / 2001. 8

월간
세계농업뉴스

제12호 (2001년 8월)

『세계농업뉴스』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 : //www.krei.re.kr](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담당 김태곤 taegon@krei.re.kr

TEL 02-3299-4241 / FAX 02-965-8401

목 차

I. 농업 농정 동향

1. 중국 동북 3성의 쌀생산 전망 3
2. 중국 WTO 가입과 농업부문 장기전망 12
3. 중국 WTO 가입이후 양돈산업 경쟁력저하 22
4. 일본 돈육 수입제한조치 발동 30
5. 일본 새로운 채소정책 추진 32
6. 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 (2001. 6) 36
7. 대만 WTO 가입에 따른 쌀시장 개방 43
8. 베트남 쌀 수출강화와 쌀농가 지원대책 45
9. 베트남 과일·채소 10억불 수출목표 51
10. 태국 북한과의 쌀수출협상 결렬 55
11. 미국 농업정책의 왜곡성 57
12. 미국 남미산 포도에 대한 덤핑조사 61
13. EU 광우병피해 농가에 특별소득지원 63
14. 독일 유기농업의 성장과 전망 66
15. 덴마크 유기농업의 성장과 전망 75

II. 국제기구 논의동향


1. WTO 2단계 농업협상 1차 비공식회의 제안 내용 83
2. 미국 국내보조관련 WTO 협상제안과 배경 101
3. 미국 EU간 바나나분쟁의 경과 106
4. 브라질 WTO에 관세인하안 제출 108

III. 농산물무역 정보

1. 중국 2001년 1~4월 대두수입 증가 113
2. 칠레 2000/01년도 과일 수출 8% 증가 115

IV. 세계 식료수급 정보

- 세계 곡물 수급 및 가격 동향 (2001. 7) 119



농업 농정 동향

중국 동북 3성의 쌀생산 전망
중국 WTO 가입과 농업부문 장기전망
중국 WTO 가입이후 양돈산업 경쟁력저하
일본 돈육 수입제한조치 발동
일본 새로운 채소정책 추진
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 (2001. 6)
대만 WTO 가입에 따른 쌀시장 개방
베트남 쌀 수출강화와 쌀농가 지원대책
베트남 과일·채소 10억불 수출목표
태국 북한과의 쌀수출협상 결렬
미국 농업정책의 왜곡성
미국 남미산 포도에 대한 덤핑조사
EU 광우병피해 농가에 특별소득지원
독일 유기농업의 성장과 전망
덴마크 유기농업의 성장과 전망

중국 동북 3성의 쌀생산 전망

1. 국제 쌀 시장과 중국

중국이 세계 벼 식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이며, 쌀 생산량의 비중은 3분의 1에 달한다. 이는 중국의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이 세계 평균에 비해 크게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중국이 10a당 640kg인 반면 세계 평균은 390kg으로 중국의 단위 면적당 수량이 세계 평균에 비해 1.6배 높다. 그러나 2000년의 경우 중국의 쌀 생산량은 식부면적의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1억 6,300만 톤으로 추정되어 세계 전체 생산량 5억 9,000만 톤의 28%에 머물렀다.

중국은 최근 5년간 쌀 수출을 급격히 증대시켜 세계 3위의 수출국이 되었다. 중국의 쌀 수출량은 지난 3년간 평균 300만톤으로 세계 전체 수출량 2,400만 톤의 13% 수준이다. 이러한 수출 실적은 최대 수출국인 태국의 2분의 1 수준이고 전통적인 쌀 수출국인 미국보다 많은 것이다. 중국의 쌀 수입량은 연간 30만톤 수준이며, 태국의 향미 등이 일부 수입되고 있다.

중국의 국내 쌀 가격은 한 때 국제 가격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1999년과 2000년의 수출 가격은 미국산의 60% 수준으로 낮아졌다. 수출가격은 국내 가격과 별도 방법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중국 쌀이 국제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수급여건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자 1998년부터 정부 수매가격을

표 1 세계 쌀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연도	수확면적(백만ha)			생산량(조곡 백만톤)			단수(kg/10a)	
	중국	세계	비중	중국	세계	비중	중국	세계
1997	31.8	151.2	21.0	202.8	574.2	35.3	638	380
1998	31.2	152.4	20.5	200.6	585.7	34.2	643	384
1999	31.3	154.2	20.3	200.5	604.2	33.2	641	392
2000	29.6	151.5	19.5	163.0	591.8	27.5	551	391

자료: USDA, Grain: World Markets and Trade, 2001. Feb.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2000.

크게 인하하고 있다. 2000년 수매가격은 1997년 대비 21.6% 하락하였다.

국제 쌀 재고량은 6천만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량 4억톤의 15% 수준이다. 중국의 재고량은 1999년 2,650만 톤으로 국제 재고량의 40%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에는 재고량이 1,900만톤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재고량 감소는 중국의 쌀 생산량(조곡 기준)이 2000년에 3,700만톤이나 감소한 결과이다.

중국의 쌀 산업이 국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이외에도 쌀은 중국인들의 주식일 뿐만 아니라 식량작물 파종면적의 30%, 식량작물 총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중국은 국제 쌀 시장의 변화와 국내 소비자 기호 변화를 반영하여, 장립종 쌀의 재배면적은 축소하고 중·단립종 쌀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쌀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포니카 계통 쌀의 수출 능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WTO 농업협상과도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가 쌀의 관세화 유예 조치를 연장 받고 시장접근 물량을 늘려주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중·단립종 수입은 증가할 것이다. 일본은 쌀 시장을 관세화 방식으로 개방하였으며, 따라서 가격차와 품질에 따라 일본의 중·단립종 쌀 수입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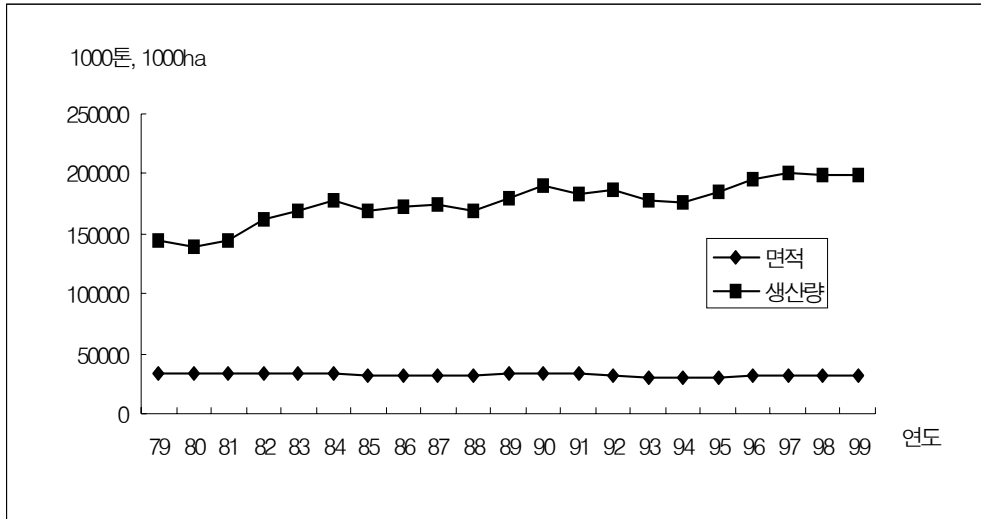
2. 중국의 쌀 생산

중국 정부는 1995년 식량 산업에 대한 시장개혁을 중단하고 ‘쌀포대 성장책임제’(governors’ rice bag responsibility system)를 도입하여 국내 식량 공급을 각 성정부가 책임지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쌀포대(rice bag)에는 모든 곡물이 포함된 개념으로 밀, 옥수수, 쌀이 주요 대상이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 성정부는 재배면적의 안정적 확보, 비료 등 농자재 산업에 대한 투자 확보, 재고 확보, 가격 안정, 시장 거래 곡물 통제, 곡물시장 조정 방법 개발, 시장거래 증대, 수출입 통제, 자급률 제고 등 곡물과 관련된 거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밖에 채소류 등의 지방정부 책임을 강조한 ‘채광주리 시장책임제’를 도입하여 곡물 이외에 부식도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쌀은 품종별로 자포니카 계통인 갡도(粳稻)와 인디카 계통인 선도(籼稻)로 나뉘고, 성숙기에 따라 조도(早稻), 중도(中稻), 만도(晚稻)로 구분된다. 자포니카 쌀은 중국 내에서도 수요가 증가하여 1990년대에 들어와 중국정부는 우량 품종의 갡도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반면 남부지방에서 재배되는 조생종 선도의 재배를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갡도 위주의 쌀 생산은 중국내 수요의 증가와 한국과 일본 등 자포니카 품종을 선호하는 시장을 목표로 하여 지속될 전망이다.

자포니카 품종이 생산되는 북방 쌀 생산지대는 화북, 동북, 서북, 산둥, 하남 등의 지방이다. 특히 동북 3성에서 자포니카 계통의 쌀이 주로 생산되며 전체 자포니카 생산량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쌀 재배면적은 1970년대 3천 400만 ha에서 최근에는 3,100만 ha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생산량은 1억 4천만톤에서 2억톤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단위면적당 수확량의 증가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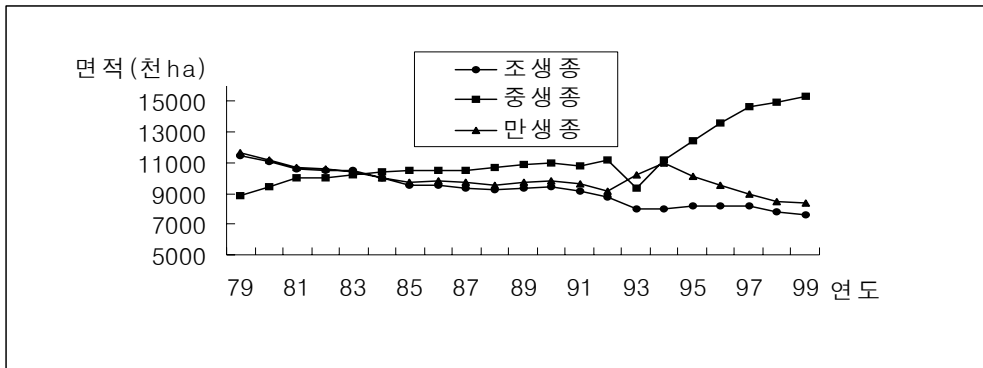
그림 1 중국 쌀 생산량과 재배면적 추이



중국의 쌀 생산 변화 가운데 두드러진 현상은 조생종과 만생종 벼의 감소와 중생종 벼의 생산 증가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중생종 쌀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이는 화북, 동북, 산둥 등 쌀 생산지역의 쌀 재배가 껭도 위주로 전환된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만생종과 조생종의 생산이 동시에 감소하고 있다. 2모작과 3모작의 저품질 조생종 쌀에 대한 정부의 지지가격이 철회되고 소비자 기호가 품질이 좋은 자포니카 계통의 쌀을 선호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추세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은 쌀 생산이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 품종별 벼 재배면적 변화



3. 동북 3성의 쌀 생산 전망

3.1. 자포니카 쌀 생산의 증가

벼 재배면적과 쌀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중·단립종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중·단립종 쌀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량 증가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자포니카 계통의 벼를 재배하는 동북 지역의 벼 재배면적 확대와 그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이다. 흑룡강성의 경우 지난 10년간 벼 재배면적이 100만 ha나 증가하였다. 둘째, 양자강 중하류 지역인 중부지방에서의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량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양자강 중하류 지역의 강소성, 절강성, 상해시 등에서도 중·단립종 벼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중·단립종 쌀 생산 증가는 동북 3성 지역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중단립종 쌀 생산은 요녕성, 길림성 및 흑룡강성 등 동북 3성의 비중이 가장 크며, 최근의 증가 추세도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동북 3성의 쌀 재배면적은 1979년 84만ha에서 1985년 119만ha, 1999년에는 258만ha로 증가하였다.

표 2 동북3성의 쌀 생산 추이

단위: 만ha, 만톤, kg/ha

연도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면적	생산량	단수	면적	생산량	단수	면적	생산량	단수
1985	48.0	263.0	5,479	32.2	183.7	5,705	38.9	162.9	4,188
1986	51.0	323.8	6,349	35.1	174.3	4,966	50.7	220.8	4,355
1987	54.8	340.7	6,217	36.8	222.3	6,054	58.1	225.7	3,885
1988	55.4	340.2	6,141	38.0	224.4	5,905	55.3	243.5	4,403
1989	55.3	283.8	5,132	38.9	185.6	4,771	60.4	231.7	3,836
1990	54.3	375.7	6,919	41.8	289.4	6,923	67.4	314.4	4,665
1991	54.2	403.4	7,443	43.3	306.3	7,074	74.7	316.2	4,233
1992	55.7	417.7	7,499	44.2	302.9	6,853	77.8	376.6	4,841
1993	48.4	376.5	7,776	42.8	315.2	7,364	73.6	388.3	5,276
1994	45.9	316.2	6,893	41.8	292.7	7,010	74.7	410.4	5,493
1995	47.3	261.8	5,539	42.9	296.9	6,911	83.5	469.9	5,627
1996	47.8	338.9	7,088	43.4	347.4	8,003	110.7	636.0	5,745
1997	49.2	385.7	7,844	45.3	376.2	8,303	139.7	860.9	6,163
1998	49.6	378.9	7,639	45.9	385.5	8,399	156.7	925.8	5,909
1999	50.2	414.6	8,259	46.5	405.9	8,729	161.5	944.3	5,847
2000	55.0	400.0	7,273	-	-	-	161.5	1,042	6,480

자료: 중국 농업통계연감, 각연도.

3.2. 고품질, 저투입 농법의 확산

중국의 농업 구조조정은 시장 지향적, 세계시장 지향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녹색식품(유기농산물)과 우량품종 및 경제작물 생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쌀 생산은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고품질의 중·단립종 생산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생산자와 유통, 가공업자가 계약 재배 형식을 취하는 녹색식품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품질 위주의 생산은 품종 개발에서부터 시작된다. 동북 3성의 벼 재배 품종은 일본과 한국 품종을 개량한 것과 중국이 자체 개발한 것 등 다양

하다. 20여년전 일본 품종인 부사광(후지히까리)을 도입하여 재배하기 시작하였으나, 최근에는 흑룡강성의 경우 ‘공유’, ‘아야’, ‘오우’, ‘호시노유메’ 등이 개발 보급되었으며, 길림성은 ‘통35호’, ‘길옥경’, ‘초산호’, ‘황금량’ 등을 개발·보급하였다. 요녕성의 경우 ‘요갱’, ‘요우’ 등이 보급되었다.

품질위주로 정책이 전환된 것은 1990년대 들어와서 이다. 이러한 품질 위주 쌀 생산은 최근(1995년 이후) 녹색식품 등 친환경적 유기농산물 생산 개념으로 접목되고 있다. 녹색식품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인정을 받아야 녹색식품으로 표시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인증 절차를 보면 먼저 녹색식품 생산 신청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생산단지 또는 재배농민이 성정부 녹색식품 관리소에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성정부 녹색식품관리소는 환경검사소에 생산지의 수질과 토양 등 재배환경의 조사를 의뢰하여 적합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재배기간 중에는 농약과 비료를 녹색식품관리소에서 공급받아 사용 일정량 이하만 사용하여야 한다. 출하 시에는 생산물의 표본을 식품검사소에 제출하여 품질검사 및 잔류농약 등 성분 분석을 받아야 하며,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에서 2회의 심사를 거쳐 농업부에 보고하면 농업부에서 녹색상품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흑룡강성은 양질의 초다수성 품종 육성을 통해 쌀 생산을 늘리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성정부는 1995년에 ‘양고일우’정책을 발표하였다. 흑룡강성의 논 면적은 증가할 전망이나 지금까지의 증가율에는 크게 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벼 재배가 다른 작물보다 수익성이 높으나 수자원 문제와 환경보호 정책이 선행될 전망이다. 반면 녹색식품 등 유기농 쌀 생산이 증가할 것이다. 성정부는 품종 개량을 위해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지도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길림성의 쌀 생산량은 조곡 기준으로 450만톤(정곡 기준 320만톤)이며, 성내 쌀 소비량은 220만톤으로 100만톤 정도가 다른 지역으로 공급된다. 쌀 생산을 위한 주요 정책은 품질위주의 생산 정책(정책전환 1990년), 녹

색식품 생산 권장(1995년), 영농가금 지원, 새로운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및 지도, 녹색식품 생산 장려 등이다. 국내 및 국제시장의 수요가 증대하면 재배면적이 증대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쌀의 잉여량이 많아 재배면적은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다수확 생산 위주에서 품질 위주의 생산으로 전환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요녕성의 미곡 정책도 흑룡강성과 길림성의 중점 추진 정책과 유사하다. 다수확 위주의 재배에서 양질미 위주로 생산을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성정부는 양질미 재배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수도연구소와 토양 및 식물보호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20만 ha의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가뭄에 대비하여 절수 재배기술을 중점적으로 지도하여 마른 논 경운, 얇은 물대기, 집단 묘판 설치 등을 권장하고 있다. 그밖에 요녕성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 농정은 농가와 기업을 연결시켜 농가 이윤을 보장하고 부가가치 높은 생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방안으로 계약재배를 장려하는 것이다. 계약재배 목표를 2001년 20%, 2005년 50%로 설정하고 추진 중이다.

3.3. 국제 쌀 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처

중국의 쌀 생산은 국제 시장의 변화가 없다면 큰 변동이 없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1인당 소비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전체적인 수요도 정체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따라서 당분간 중국의 쌀 수급은 약간의 공급 과잉 상태에서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쌀 수급의 구조조정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수요는 자포니카 계통이 증가하고 이모작(또는 3모작)으로 재배되는 저품질의 인디카 수요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생산도 동북3성을 비롯한 중북부 지역의 자포니카 생산은 현상태 유지 내지는 약간의 증가가 전망되나, 중부 지방의 인디카 재배 지역에서는 인디카에서 자포니카로 전환되는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동북 3성의 벼 재배면적은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증가 속도는 지난 10년간에 비해 매우 낮을 것이다. 그 원인으로서는 정책적 제약, 수자원 부족, 생태보존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흑룡강성 일부에는 논으로 개간할 수 있는 습지가 있으나 습지의 파괴는 물 부족과 자연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여 개간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

현재에도 흑룡강성을 제외한 요녕성과 길림성의 벼 재배 면적은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요녕성의 경우 현재 벼 재배면적 800만무(55만 ha)를 앞으로 5년간 100만무 정도 감축시킬 예정이다. 그 이유는 주로 지난 3년에 걸친 가뭄, 지속적인 물 부족, 밀 생산이 수요에 훨씬 못 미치는 점 등이다. 요녕성의 소맥 수요는 200만톤에 이르나 생산은 60만톤에 불과하여 콩과 함께 소맥의 재배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국제 쌀 시장에서 자포니카 계통 쌀의 급격한 수요 증가가 없는 한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은 흑룡강성의 저습지 개발 등에 의한 쌀 생산 증대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국제 쌀 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실시한 식부의향조사에 의하면 2001년 식부의향 면적은 1.56억 ha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2000년과 같은 급격한 감소(전년 대비 9% 감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면화, 유지작물, 담배, 채소 등 경제작물은 증가하고 곡물 면적은 약간 감소(2000년 대비 1.7% 감소)하여 작목 전환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곡물 식부 예정 면적은 1.07억 ha로 최소 재배면적으로 간주되는 1.1억 ha보다 약간 적은 수준이다. 곡물은 2.5% 감소하고 서류는 3.1%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쌀 재배면적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세균 skchoi@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중국 WTO 가입과 농업부문 장기전망

과거 대다수의 농업전문가들은 중국농업이 직면한 문제를 인구증가, 경지면적 감소, 농업자원환경 악화, 수자원 부족, 농업투자 부족, 농업자금 유출 등으로 보았다. 그러나 장차 중국 농업이 직면하게 될 문제는 위와 같은 전통적인 문제보다는 시장경쟁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문제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국제화와 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농산물시장경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중국 국민생활수준이 점진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중국 국내시장에서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시장경쟁은 과거의 가격경쟁으로부터 점진적으로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의 방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논문은 중국이 WTO가입을 앞둔 시점에서, CAPSIM모형을 이용하여 기존방안과 자유화방안의 가설을 설정하고, 장차 농산물의 생산, 소비, 수출입, 시장가격 등에 대한 전망을 하였다. 기존방안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지 않고 현재의 농업정책 및 대외무역정책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였다. 자유화방안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동시에 무역자유화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2005년에는 농산물 시장이 완전 개방되고, 시장진입 제한조치가 완전히 철폐됨으로서 농산물가격 보호수준이 0으로 감축한다고 가정하였다. 이상 두 방안은 모두 극단적인 방안이며, 실제상황은 두 가지 방안의 중간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

1. 기존방안

1.1. 축산물과 수산물은 수급균형 유지

돼지고기 총 소비량은 1995년 1,913만톤, 2005년 2,742만톤, 2020년에는 4,037만톤에 달하여, 중국 국내생산량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며, 순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약 20만톤 내외를 유지할 것이다. 기타 수산물과 축산물 생산량은 중국 국내소비량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표 1>.

1.2. 사료곡물 소비량 급속히 증가

축산물과 수산물수요가 신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중국은 사료곡물에 대한 수요가 1990년대 중반의 약 1.08억톤에서 2005년 1.51억톤, 2020년에는 2.15억톤으로 증가할 것이다<표 2>. 식량의 총 소비량 가운데 사료곡물이 차지 비율은 1990년대 중반 약 27%에서 2010년 약33%, 2020년 약 37%로 증가할 것이다. 장차 중국의 식량문제는 상당한 정도에 있어서 사료곡물 문제가 될 것이다.

1.3. 식량수입 다소 증가, 그러나 총소비량의 약 4%에 불과

21세기에 중국의 식량공급량은 수요량보다 다소 낮을 것이다. 따라서 식량의 순수입량은 2005년 2,089만톤, 2010년 2,209만톤, 2020년 2,252만톤에 달할 것이다. 식량자급률은 1990년대초 기본적으로 자급을 유지하던 수준에서 21세기초에는 약 96%를 유지할 것이다. 순수입량은 총소비량의 약 4%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국 정부의 식량자급목표인 95%와 일치한다.

1.4. 유지작물과 당료작물의 수요량은 다소 증가

식용유와 설탕의 수요증가 속도는 식량과 축산물 수요증가의 중간정도에서 유지될 것이며, 국내가격은 소비증가가 생산의 증가를 가져와 균형을 유지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수입량은 총소비량의 약 5%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기본방안과 자유화방안의 육류수급 전망

단위: 천톤

	1995	2005	2010	2015	2020
기존방안					
돈육					
생산량	19450	27659	32179	36503	40554
순수입량	-319	-241	-249	-219	-188
총소비량	19131	27418	31930	36284	40366
쇠고기					
생산량	1866	3003	3594	4205	4881
순수입량	-21	-19	-15	-11	-10
총소비량	1845	2984	3579	4195	4871
가금육					
생산량	4682	7560	9350	11302	13112
순수입	209	263	256	236	256
총소비량	4891	7823	9606	11538	13371
무역자유화방안					
돈육					
생산량	19450	30906	36263	41031	45301
순수입	-319	-4588	-5696	-6039	-6017
총소비량	19131	26318	30569	34992	39284
쇠고기					
생산량	1866	3060	3634	4213	4884
순수입량	-21	29	136	286	346
총소비량	1845	3089	3770	4499	5230
가금육					
생산량	4682	8415	10487	12759	14791
순수입량	209	-846	-1221	-1689	-1935
총소비량	4891	7569	9266	11070	12856

표 2 기존방안과 무역자유화방안에 따른 식량수급전망

단위: 만톤

	식량총생산량		순 수입	재고 변동 량	식량 총공 급량	식량수요					합계
	조곡	정곡				직접 소비	사료 곡물	종자 용	공업 용	감모 분	
기존방안											
1995	47208	41645	822	2073	40394	22909	10797	1515	2700	2474	40394
2005	51981	46082	2088	256	47914	25670	15098	1409	3271	2463	47914
2010	55689	49539	2208	202	51546	26779	17345	1355	3553	2513	51546
2015	59073	52733	2302	128	54907	27679	19526	1302	3861	2537	54907
2020	62249	55757	2252	57	57952	28460	21494	1252	4200	2544	57952
무역자유화 방안											
2005	50945	44912	5469	773	46808	25920	16609	1395	3271	2412	49608
2010	54721	48371	5393	256	53508	26925	19213	1347	3553	2467	53508
2015	58609	51641	5505	144	57001	27692	21643	1302	3861	2501	57001
2020	61685	54818	5295	43	60070	28313	23778	1251	4200	2521	60070

1.5. 원예작물 수출은 다소 증가

중국은 화훼를 제외한 채소, 과수 등의 원예작물은 아주 높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방안의 가정에서는 수출능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출량이 총생산량에서 점하는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1.6. 경종작물 가격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

2005년까지 쌀, 밀, 옥수수, 콩, 당료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옥수수를 제외한 기타 식량작물의 실질가격은 모두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식량가격은 여전히 국제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기타 식량작물의 가격이 2005년 이후 하락하게 될 주요 원인은 중국 국내 식량 소비량의 증가속도가 생산량의 증가속도보다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21세기에 중국의 쌀, 밀, 콩의 명목가격 보호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옥수수의 명목가격 보호율은 현재의 약 25%에서 2005년은 77%, 2010년에는 92%까지 상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본방안 아래서 중국은 향후 20년 동안 기본적으로 식량의 자급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식량 및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은 국제가격보다 높을 것이며, 따라서 정부 재정부담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특히 옥수수 등의 사료작물의 가격상승은 중국 축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며, 이는 중국의 축산물 생산량이 기본적으로 소비량을 만족시키는 수준에서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표 3 무역자유화가 중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영향	대책
긍정적인 면	
1. 농업자원 효율적인 배분과 농업생산 구조 개선 · 축산물과 원예작물 수출 확대	· 수입대체에서 수출촉진으로 정책전환 · 비교우위에 있는 업종 중점개발
· 원예작물 단기적으로 품질, 저장, 운송 등 기초설비 미비로 효과 미흡	· 품질 및 기초설비 개선 · 상품 표준화 및 품질감독체계 구축 · 농산물 유통체계 개혁
· 돈육 및 가금육의 생산과 수출 확대	· 전염병예방 및 검역체계 개선
2. 장기적으로 농민소득증가에 유리	· 노동시장개선 · 농촌 신용대출시장의 개선
3. 전반적인 가격하락 사회복지 개선	· 재분배정책 확대
4. 농산물 무역량 증가	· 항구, 저장, 운송 등 기초시설 개선
5. 농산물 시장체계가 개선됨	· 농산물시장 유통체제 개혁
부정적인 면	
1. 옥수수, 밀, 유지작물, 콩, 면화 등 경종작물 생산 상대적으로 위축	· 농업과학기술부문의 투자를 확대 · 단위당 생산비 하락 · 농업기초설비의 투자 확대
2. 농업부문 직업창출 기회 축소	· 단기 : 옥수수 시장접근물량 단계적으로 축소 · 장기 : 농업기초시설을 확대 · 식량안정정책에서 식용식량안정정책으로 전환 · 노동시장 개선, 노동력 수준 향상
3. 단기적으로 경종위주 농민수입 감소 · 빈부격차 확대 · 새로운 사회불안 요소 발생	· 이익재분배 정책실시 · 직업훈련 및 농촌자금시장 개선
4. 옥수수, 밀, 콩, 유류작물, 면화 등 생산지역 소득감소 · 지역간 경제적인 격차 확대	· 지역간 이익재분배정책추진 · 노동, 자금 등 요소시장 발전 촉진

2. 무역자유화 방안

기본방안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농산물 시장의 대외개방은 대량의 사료곡물, 식용유, 설탕 등의 농산물이 중국 시장에 유입됨과 동시에 중국의 일부 비교우위에 있는 목축업, 수산업, 과수, 채소 등의 업종은 빠른 발전을 할 것이다. <표 1>과 <표 2>에서 무역자유화 상황아래 중국 농산물의 수급상황에 대한 전망을 설명하였으며, <표 3>은 무역자유화 방안과 기존 방안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비교분석 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

2.1. 중국 농업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첫째, 농업자원의 배분 및 농업생산 구조가 개선될 것이다. 특히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농산물의 자원배분이 개선될 것이다. 예를 들면, 옥수수, 밀, 유지작물, 당료작물, 콩, 면화 등 농작물의 파종면적과 생산량은 농작물 총 파종면적과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며, 채소, 과일 등 원예작물의 파종면적과 생산량은 다소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젓소와 양모를 제외한 축산업은 무역자유화와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가장 큰 수혜업종이 될 것이다.

둘째, 장기적으로 살펴볼 때 전반적인 농민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농업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농업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농업노동력은 점진적으로 비농업부문으로 전환될 것이며¹⁾, 따라서 자유화방안에서의 농민의 수입증가는 기본방안에서의 농민의 수입증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1) 무역자유화에 따라 농촌내부의 기타업종에서 직업창출의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농민수입이 개선됨.

셋째, 소비자 복지수준이 진일보하게 개선될 것이다. 2005년까지 농산물 가격은 무역자유화 방안과 기존방안을 서로 비교하여볼 때, 밀의 가격은 14%, 옥수수는 23%, 콩은 15%가 하락하며, 쌀 가격은 다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식량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증가된 소비자복지는 축산물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감소된 소비자복지보다 높으므로, 소비자의 총 복지수준은 상승할 것이다.

넷째, 축산물과 원예작물 수출이 대폭 증가할 것이다. 2005년에 이르면 돼지고기 수출량은 기존방안의 24.1만톤에서 무역자유화 방안의 458.8만톤으로 증가할 것이며, 가금육은 순수입에서 순수출로 전환되고 수출량은 100만톤 이상에 달할 것이다. 2020년에 이르면 중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600만톤에 달할 것이며, 돼지고기와 가금육의 수출량이 중국 국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15%이상이 될 것이다.

젓소와 양모 이외에 무역자유화 방안에서 축산물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게 된 원인은 무역자유화로 인하여 사료의 중국 국내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무역자유화로 인하여 원예작물의 수출이 크게 상승할 것이나, 이는 품질, 운송, 신선도 보호 등 기술적인 제약을 받을 것이다.

2.2. 중국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첫째, 경종업 생산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이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옥수수, 유지작물, 콩, 당료작물, 면화 등일 것이다. 기존방안과 비교하였을 때, 2005년 옥수수 생산량은 8.3% 감소한 1,106만톤, 밀 생산량은 3.8% 감소한 437만톤이 될 것이다<표 4>.

표 4 기존방안과 무역자유화방안에 따른 품목별 식량수급전망

단위: 만톤

	총 생산량	순 수입량	재고 변동량	총 공급량	총수요량					
					직접 소비량	사료 곡물	종자 용	가공 식용	감모분	합계
기존방안										
쌀										
2005	13765	48	62	13751	11100	1409	213	273	754	13751
2010	14350	0.1	48	14302	11655	1408	203	287	748	14302
2015	14793	-53	25	14714	12106	1379	193	302	733	14714
2020	15147	-127	11	15007	12471	1320	183	317	714	15007
밀										
2005	11524	1096	8	12611	10583	328	661	406	631	12611
2010	12348	796	1	13143	11125	316	636	421	643	13143
2015	13076	504	-4	13586	11590	297	621	438	648	13586
2020	13733	272	-3	14010	12045	274	588	454	647	14010
옥수수										
2005	13297	847	192	13979	1145	11703	110	411	607	13979
2010	14904	1413	168	16150	1099	13850	109	443	647	16150
2015	16548	1895	133	18310	1045	15995	108	477	683	18310
2020	18241	2170	83	20328	988	18001	106	514	716	20328
무역자유화방안										
쌀										
2005	14075	-338	14	13722	10910	1550	216	273	771	13722
2010	14816	-605	18	14192	11364	1560	207	287	772	14192
2015	15445	-961	-12	14497	11701	1529	199	302	765	14497
2020	16023	-1402	-33	14655	11930	1461	190	317	755	14655
밀										
2005	11087	2038	117	13008	10986	361	646	406	607	13008
2010	11987	1539	-11	13538	11515	350	625	421	624	13538
2015	12842	1089	-24	13957	11946	330	606	438	636	13957
2020	13668	651	-26	14346	12357	303	586	456	644	14346
옥수수										
2005	12191	3587	629	15150	1201	12875	104	411	556	15150
2010	13498	4419	273	17643	1168	15342	102	443	586	17643
2015	14858	5403	214	20047	1125	17730	100	477	631	20047
2020	16286	6100	142	22244	1077	19913	98	514	639	22244

둘째, 식량자급률이 하락할 것이다. 기존방안에서 중국 정부가 목표한 식량자급률 95%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역자유화 방안에서는 2005년 식량자급률은 약 94%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표 4>. 이 가운데 옥수수는 수출에서 수입으로 전환될 것이며, 특히 2004년 관세 할당량이 취소되면 옥수수의 수입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5년 수입량은 3,588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즉, 중국 국내 옥수수 총소비량의 약 4분의 1이 수입되어 축산업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옥수수 수입의 급격한 증가는 중국의 식량자급률을 하락시킬 것이나, 축산업 발전을 촉진시키는 부문에 있어서는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다.

셋째, 경종부문의 직업창출 기회는 진일보하게 감소할 것이다. 기존방안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무역자유화 방안에서 2005년까지 경종부문에서 감소된 노동력은 약 4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노동력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러한 잉여노동력을 어떻게 적절하게 전환시킬 수 있는지는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식량과 유지작물 생산지역의 농민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식량, 유지작물, 당료, 면화 등을 생산하는 농민은 생산량이 감소될 뿐 아니라 시장가격 또한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의 소득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자료: <http://www.space-seed.com/wto02-16.htm>에서
(이수행 soohaeng@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중국 WTO 가입이후 양돈산업 경쟁력저하

중국은 세계 최대의 돈육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최근 중국의 돈육 수출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수입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양돈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생돈 수출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신선육, 냉동육, 냉장육이며, 가공품과 부산물의 수출은 적은 편이다. 반면 신선육, 냉동육, 냉장육 및 부산물은 주요 수입품목이다.

1990년 이후, 중국 양돈산업의 비교우위는 점진적인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WTO 가입이후 생산비 측면에서 중국은 양돈산업의 비교우위를 유지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 생산 및 소비현황

최근 중국의 돈육 생산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 1998년 중국의 양돈 사육두수는 42,256만두, 도축두수는 50,215만두, 돈육 생산량은 3,884만톤(육류 총생산량의 67.8%)으로, 1990년에 비하여 각각 16.6%, 62.0%, 70.3%가 증가하였다. 또 중국의 양돈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표 1>과 같다.

표 1 중국의 양돈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도축두수	사육두수	돈육 생산량
1990	33.6	42.3	32.6
1998	46.2	44.3	46.1

중국은 세계에서 돈육 생산대국인 동시에 소비대국이다. 중국이 생산한 돈육의 약 98%는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1인당 돈육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 수출입현황

1990년 이후, 중국 돈육의 수출 총량은 기본적으로 35~50만톤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수출량이 생산량에서 점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0년 돈육 수출량이 생산량에서 점하는 비중은 2.1%이었는데, 1998년에는 0.9%로, 1.2% 포인트 하락하였다. 이와 동시에 돈육 수입량은 1990년에서 1998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1998년에는 수입량이 2.72만톤에 달하여(1998년을 제외하고는 연간 1만톤 미만) 급증하는 추세이다.

2.1. 생돈

1990년 이후 중국이 매년 수출한 생돈(종돈은 포함하지 않음. 이하 동일)은 약 220~300만두에 달하였다. 이를 정육으로 환산하면, 중국의 돈육 수출량의 50%에 달한다. 이는 중국의 생돈 수출이 돈육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돈 수출량과 비교하여, 생돈 수입량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는데, 수입량이 가장 많은 해의 수입량은 단지 1.14만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생돈 수출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8년 중국의 생돈 수출량은 220만두로 1990년의 300만두에 비하여 26.7% 하락하였다. 수출 생돈의 크기는 50kg이상이 75%~80%, 10kg~50kg이 15~20%, 10kg이하가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2.2. 신선육, 냉장육, 냉동육

1990년 이후, 1992년과 1993년을 제외하고, 중국의 신선, 냉동, 냉장 돈육의 수출량은 기본적으로 10~15톤을 유지하였다. 이를 정육으로 환산하면 중국 양돈 총 수출량의 약 30%에 달한다. 동시에 신선, 냉동, 냉장 돈육의 수입량은 2만톤을 초과하지 않고 있지만, 돈육 총 수입량에 차지하는 비중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신선, 냉동, 냉장 돈육의 수입이 총수입량에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1%에서 1998년 68.1%로 증가, 총수입량의 3분의 2를 차지하였다. 1992년, 1993년, 1998년을 제외하고, 중국의 신선, 냉동, 냉장 돈육의 순수출량은 약 10만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중국의 신선, 냉동, 냉장 돈육의 수출량이 총수출량에서 점차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3. 돼지고기 가공품

최근 돼지고기 가공품의 수출량은 6만톤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를 정육으로 환산하면 정육 총수출량에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이다. 돼지고기 가공품의 수입량은 199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0.2만톤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정육으로 환산하였을 때 정육 총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72.4%에서 1998년 6.7%로 감소하였다. 1995년 이전, 돼지고기 가공품은 중국의 주요 돈육 수입품목이었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중국 돼지고기 가공품의 수입물량은 돈육 총수입량 가운데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량은 수출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아주 적다.

돼지고기 가공품의 수출구조를 살펴보면, 돈육과 부산물을 이용한 통조림의 비중이 가장 많으며, 지속적으로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1990년 94.4%에서 1998년 53.5%로 하락하여, 약 40% 포인트 정도 하락하였다. 그리고 내장을 이용한 가공품(香腸), 말린 것, 훈제 등이 돼지가공품의 수출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4. 돼지 부산물

생돈, 신선육, 냉장육, 냉동육, 가공품 등과 비교하여 보면, 돼지 부산물이 중국의 돈육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적으며, 1990년대 이래 줄곧 1% 이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소비자는 돼지 부산물 소비에 대하여 일정한 정도의 기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돼지 부산물 수입이 돈육 총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는데, 90년대초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최근 3년간에는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돼지 부산물 무역은 1995년 순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3. 비교우위 및 생산비 분석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RCA방법을 이용하여 중국의 돈육 생산에 대한 비교우위를 분석한 결과, 1991~1997년 기간동안 중국의 돈육 생산은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나(RCA>1), 비교우위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1년 RCA는 4.0이었는데 반하여, 1992년은 2.4로 하락하였다. 이후 비록 다소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1991년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1997년에는 1.8로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RCA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주요 원인은 중국의 돈육 수출물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최근 돈육 생산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식량정책의 영향을 받아 중국의 사료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며, 이것이 양돈산업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세계의 기타 양돈 국가와 비교하여 보면,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양돈생산은 미국, 일본과 비교하여 여전히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중국, 일본, 미국의 kg당 생돈 생산비용

단위: 위엔

		총생산비용	
		노동비용	사료비용
중국	7.05	0.76	4.00
농가분산사육	6.94	1.36	3.55
전문농가사육	6.82	0.44	4.13
국영집체농장사육	7.42	0.41	4.40
미국	7.17	1.01	5.13
일본	20.49	3.44	12.52

1998년 중국의 kg당 돈육의 평균생산비용은 약 7.05위엔 이었는데 반하여, 미국은 7.17위엔 이었으며, 일본은 20.49위엔에 달하여 중국의 3배에 달하고 있다.

생돈 생산비용의 주요 구성부문인 사료비용과 노동비용을 좀더 자세하게 분석하여 보면, kg당 돈육 생산비용 가운데, 노동비용은 각각 일본 3.44위엔, 미국 1.01위엔인데 대하여, 중국은 단지 0.76위엔에 불과하다. 사료비용은 미국이 5.13위엔, 일본이 12.52위엔인데 대하여, 중국은 단지 4위엔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이 현재 양돈 사육비용 가운데 노동비용은 물론이고 사료비용에 있어서도 일정한 정도의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바로 중국농가에 의한 양돈 사육은 상당량의 음식물 찌꺼기를 돼지사료로 이용함으로써 생산비용을 낮추거나, 일부는 아예 생산비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양돈사육방식에 따라 생산비를 비교하여 보면, 농가의 분산적인 사육과 전문농가가 사육하는 양돈의 생산비용은 미국과 일본에 비하여 낮

다. 그러나 중국 돈육 수출량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국영집체농장이 사육하는 양돈의 생산비용은 미국에 비하여 높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돈육 수출의 비교우위는 높지 않다.

돈육의 품질면에서 살펴보면, 선진국에서 생산한 것은 모두 살코기형의 돈육인데 반하여, 중국에서 생산된 돈육은 살코기형 돈육의 비중이 적고 비계형 돈육의 비율이 높다. 살코기형 돈육을 생산하면 사료 비용과 새끼 돼지의 생산비용이 비교적 높다. 따라서 이러한 살코기형 양돈 생산비용을 가지고 기타 양돈 생산국과 비교할 때, 중국의 살코기형 돈육 생산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아주 어렵다.

현재 중국에서 사료 가격은 국제시장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중국의 돈육 생산이 사료비용면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중국의 양돈 사육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의 분산적인 사육이다. 농가당 평균 3~5마리의 양돈을 사육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육되는 양돈이 중국의 총 사육량에서 점하는 비율은 75%~80%이며, 생산된 양돈의 거의 대부분은 지방형 양돈이다.

둘째, 전문농가에 의한 사육이다. 농가당 양돈 사육두수는 수백마리에서 수천마리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사육되는 양돈이 중국 총 양돈 사육량에서 점하는 비율은 약 15%이며, 생산된 양돈의 거의 대부분 살코기형 양돈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육되는 양돈은 거의 대부분 중국 국내시장에 공급되고 있으며, 이밖에 공장화된 양돈사육장에서 생산되는 살코기형 양돈은 일

부는 생돈의 형태로 홍콩에 공급되며, 일부는 대도시에 공급되어 소비되고 있다. 생산수준에 따라 평가를 하여보면, 일부 공장화된 사육장의 생산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4. WTO 가입이후 수출입 전망

중국은 세계 최대의 돈육 생산국이지만 세계 최대의 돈육 수출국은 아니다. 돈육의 주요 수출국은 북구의 선진국이다. 예를 들면,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등이다. 세계의 주요 돈육 수입국은 독일, 이태리,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홍콩 등이다.

새로운 WTO 규정에 따르면, 세계의 돈육 시장은 장차 일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서유럽은 목축업 상품 생산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축산물 수출에 대한 보조를 감축할 것이며, 따라서 생산과 수출의 증가추세는 하락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축산물 시장의 개방정도를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과도기 동안 양국은 모두 WTO협정에서 인정하는 일부 규정을 이용하여 자국의 생산자를 보호할 것이다. 대만은 WTO 가입협상 가운데, 축산물 시장개방이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미국의 압력에 부딪쳐 점진적으로 생산자 보호수준을 감소시킬 것이며, 또한 날로 악화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돈 사육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아마 중국이 일본에 돈육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돼지 구제역 발생지역이기 때문에 당분간 일본에 대한 돈육 수출은 어려울 것이다.

WTO에 가입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장차 2004년까지 돈육 수입관세

율을 12%까지 하락하여야 한다. 그러나 생산비와 관세의 영향으로 인하여 외국산 돈육 및 돼지 가공품이 중국에서 비교적 큰 시장을 점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이 홍콩, 마카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 대하여 수출한 생돈, 돈육, 돼지 가공품은 생산비와 운송비용에 있어서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에 WTO 가입 이후에도 돈육 수출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세계 최대의 돈육 생산국으로서 중국이 국제시장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제역을 비롯한 전염병 방지, 잔류농약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자료: <http://www.agrionline.net.cn/zhuanjia/article/wto523/811.htm>에서
(이수행 soohaeng@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일본 돈육 수입제한조치 발동

일본 농림수산성은 7월 27일, 돈육과 그 가공품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관세잠정조치법'에 근거하여 수입관세를 8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인상하는 긴급조치를 발동한다고 발표하였다. 발동후 기준수입가격은 지육은 1kg당 약 100엔이 증가한 510.03엔, 부분육은 약 135엔이 증가한 681.08엔이 된다.

1. 8월부터 세이프가드 발동

이번 긴급조치는 WTO 협정에서 인정된 것으로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한 때에 자동적으로 관세가 인상되는 특별세이프가드(SSG)와 같은 제도이다. 일본에서는 1995년, 96년, 97년에 이어 4년만에 네번째 발동되는 셈이다.

일본은 금년초 구제역 발생으로 EU산 돈육 수입을 일시 정지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수입상사들이 미국과 캐나다산 수입이 늘렸으나 EU산이 해금된 이후에도 북미산 수입이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돈육수입이 급증하였다.

돈육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는 분기별 총수입량이 과거 3년간 평균수입량의 119%를 초과한 경우에 발동대상이 된다. 지난 4~6월간 수입량이 18만 9,955톤으로 발동기준량(18만 3,850톤)을 6,105톤이나 상회하였다.

표 1 발동 후 기준수입가격

단위: 엔/kg

	기준가격	관세인상	발동후 수입가격
지육	409.90	100.13	510.03
부분육	546.53	134.55	681.08

수입제한이 소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농림수산성은 “5월말 재고는 15만 4천톤으로 전년보다 6할이 많으며, 7월에도 수입제한조치발동을 예상하여 예정을 앞당겨 수입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을이후 돈육 출하가 늘어나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식육계란과)고 보고 있다.

2. 가격 상승은 9월 이후

이번 긴급조치에 대해서 식육시장에서는 국산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도쿄식육시장에서는 “재고분이 있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 상승은 없을 것이다.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국산 돈육의 출하가 증가하는 9월 이후가 될 것이고, 아마도 수입감소와 출하증가가 상쇄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다.

일본에서 돈육은 국내 수요의 4할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가공원료용 수입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래서 식육업계는 햄, 소시지의 원료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경기를 생각하면 비용 증가분을 제품에 상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산으로 대체하는 것은 규격문제도 있어 역시 어렵다”고 하고 있다.

資料: <http://www.nougyou-shimbun.ne.jp/back/news/topnews...>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일본 새로운 채소정책 추진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200일간 파, 표고, 골풀 등 3품목에 대하여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어떤 상품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경합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GATT 또는 WTO의 의무를 정지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수입제한조치”이다.

세이프가드는 일시적인 수입제한조치이다. 때문에 발동기간 중에 반드시 국내 산지 대책을 수립, 당해 산업의 합리화를 위한 충분한 구조개혁을 실현할 수 없는 한 발동 의미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농림수산성은 국제적인 경쟁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산지를 형성하기 위해 생산·유통개혁을 포함하는 ‘채소정책의 전개방향과 대책’을 지난 6월 26일 발표하였다. 향후 관계자의 의향을 청취하면서 8월말 예산요구시까지 구체적 시책을 계속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책의 개요를 소개한다.

1. 새로운 채소정책의 방향

1.1. 채소생산대책의 강력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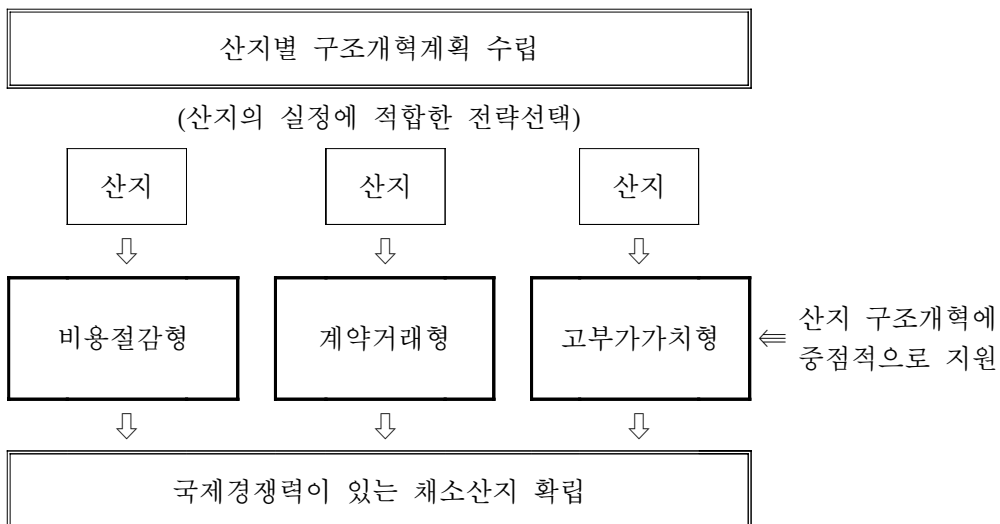
국내 채소생산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산지의 체질 강화를 비롯하여 유통·소비를 포함한 국내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전개한다.

1.2. 대책추진의 방향

채소 생산대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 (1) 산지에 따라 특성 및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산지의 의향을 근거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산지별 명확한 목표를 가진 구조개혁을 위한 계획을 작성한다.
- (2) 산지가 계획을 작성하면, 비용절감 및 고부가가치화로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전략모델(①비용절감형, ②계약거래형, ③고부가가치형) 가운데에서 각 산지는 이를 참고로 대책을 구체화한다.
- (3) 이와 같은 구조개혁을 실시하려고 하는 산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책을 강구한다.
- (4) 산지마다 계획작성은 2001년도부터 착수하여 수년내(3~4년 정도)에 계획을 실행한다.

○ 채소산업 구조개혁 체계도



2. 전략모델의 유형

모델	내용
비용절감형	수입채소에 비용면에서 대항할 수 있는 산지를 형성하기 위해, 예를 들면 생산·유통비용의 3할 정도의 감축을 목표로 하여 철저한 비용절감을 실시한다.
계약거래형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하면서 안정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定量·定價·定時·定質에 의한 계약거래를 계속 실시한다. 저가격 공급에 역점을 두는 경우는, 예를 들면 생산·유통비용의 3할 이상의 감축을 목표로 한다.
고부가가치형	입지조건에 따라 대폭적인 비용감축이 어려운 산지 및 도시근교산지 등에서 지역특산품종, 유기채소 등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한 고부가가치화로서, 예를 들면 비용을 현상 또는 그 이하로 한 생산·유통을 목표로 한다.

주: 산지에서는 각 유형을 조합한 선택도 고려되고 있다.

3. 새로운 채소정책의 개요

3.1. 계획 수립

산지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산지별로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은 3~4년간 정도를 대책기간으로 한다.

3.2. 구체적인 대책

3.2.1. 생산

- 파 고성능 조정기·수확기 도입, 저비용 내후성 하우스 정비
- 기타 기계시설 등 정비, 자재비 절감 등

3.2.2. 유통시스템

- 다원적 유통 실현, 도매시장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

3.2.3. 유통비용

- IT화·규격용기 보급, 출하규격 개선

3.2.4. 생산자와 실수요자의 연대

- 계약거래 추진, 생산자와 실수요자의 네트워크화

3.2.5. 소비

- 건강, 교육 등의 관점에서 새로운 소비대책

3.2.6.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철저·확충

3.2.7. 정보

- 채소종합정보의 수집·제공, 수급가이드라인 게시

3.2.8. 채소가격안정제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2001. 6. 26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 (2001. 6)

1. 채소의 가격과 생산동향

1.1. 전체

채소 가격은 일조부족, 한파, 적설 등의 영향으로 입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1, 2월은 상당히 상승하였다. 3월 이후는 양호한 기후조건과 기온 상승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출하가 빨라져 4월에 접어들어 전체적으로는 평년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1.2. 엽경채소

무, 당근, 양배추는 1, 2월에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였지만 3월에 안정을 되찾아 최근은 평년을 하회하는 가격수준이다.

한편, 양상추는 준고령지산인 고품질이 출하되어 평년을 약간 상회하는 가격수준이다.

또, 파는 4월 상, 중순까지는 수입증가의 영향도 있어 평년을 대폭 하회하는 수준이 계속되었지만 최근은 평년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1.3. 과채류

오이, 가지, 토마토, 피망은 3월 이후 입하가 순조로웠기 때문에 장마로

인한 일시적인 가격상승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로는 평년을 하회하는 가격수준이다.

표 1 연도별 채소 생산동향

	1996	1997	1998	1999	2000
도매가격(엔/kg)	155	154	195	163	145
생산액(억엔)	22,986	23,090	25,953	22,110	-
식부면적(천ha)	524	514	506	502	484
수확량(만톤)	1,462	1,431	1,364	1,387	1,370

자료: 동경청과물정보센터 「청과물유통연보」
 농림수산부 「생산농업소득통계」, 「채소생산출하통계」
 주: (1) 도매가격은 동경중앙도매시장 지정채소 14품목의 평균가격
 (2) 식부면적 및 수확량은 식료수급표 기준 50품목의 합계

표 2 신선채소 도매가격 동향

	2001년 4월 중순			2001년 5월 중순			2001년 6월 중순		
	가격 (엔/kg)	전년대비 (%)	평년대비 (%)	가격 (엔/kg)	전년대비 (%)	평년대비 (%)	가격 (엔/kg)	전년대비 (%)	평년대비 (%)
무	64	107	63	57	114	66	62	55	69
당근	157	96	92	113	109	59	105	103	68
배추	69	265	100	55	220	74	77	105	95
양배추	81	99	77	43	93	42	53	98	79
시금치	334	103	71	369	102	77	516	94	101
파	135	71	52	206	94	77	364	73	107
양상추	98	66	47	128	154	91	158	161	115
오이	153	79	58	155	117	80	194	76	92
가지	252	88	68	282	118	84	309	85	96
토마토	318	114	97	220	120	80	187	103	78
피망	343	125	75	226	123	75	226	77	70
감자	133	72	84	130	102	86	139	132	111
토란	180	92	94	208	72	68	375	86	91
양파	93	109	108	85	152	112	76	138	90
신선채소계	136	96	77	124	116	78	143	99	91

자료: 동경청과물정보센터 「동경도중앙도매시장의 산지별 입하수량 및 가격」
 주: '평년대비'란 과거 5년간 순별가격 평균치와 당해 순 가격과의 비율임.

2. 신선채소의 수입동향

2000년의 신선채소 수입량은 92만 6천톤으로 과거 5년간에 약 1.5배가 증가하였다.

2001년 1~5월의 신선채소 수입량은 49만 1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06%, 2001년 5월의 수입량은 7만 9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06%이다.

표 3 주요 신선채소의 수입량

단위: 천톤

	1996	1997	1998	1999	2000
신선채소계	630	573	740	885	926
양파	184	175	205	223	262
호박	144	136	129	154	133
우엉	-	-	-	72	82
브로콜리	74	72	75	91	79
생강	31	33	30	34	48
당근·무청	30	13	34	50	44
파 등	9	9	18	30	42
메론	27	24	29	39	34
마늘	24	25	27	26	29
아스파라거스	22	21	20	24	25
피망 등	4	6	9	11	16
토마토	1	1	4	9	13
가지	0	0	1	2	2

자료: 재무성 「무역통계」

주: 우엉은 1999년부터 별도 분류, 파는 「식물검역통계」에 의함

표 4 신선채소 수입속보(2001. 5)

단위: 천톤, %

	2001년 5월	대전년동기비	1~5월	대전년동기비
토마토	323	36	4,310	58
양파	13,903	74	115,211	85
마늘	1,559	84	9,982	95
파	1,629	88	17,408	158
브로콜리	7,803	113	33,303	111
결구양상추	242	185	2,381	252
기타양상추	261	159	2,147	242
당근 및 순무	8,370	121	29,210	123
우엉	3,538	104	22,335	86
기타 근채류	198	158	1,220	297
오이 및 가킨	700	275	3,765	171
아스파라거스	1,442	73	10,462	78
가지	220	98	997	81
샐러리	610	88	3,420	114
버섯	24	56	264	105
피망 등	2,527	176	8,337	149
시금치	0	0	11	60
호박	16,737	135	108,749	104
생강	5,617	127	24,329	113
수박	669	127	1,081	71
메론	4,189	74	16,661	97
딸기	60	102	1,363	127
기타 신선채소	928	153	6,900	109
합계	78,608	106	491,413	106

자료: 재무성 「무역통계」

주: 5월 자료는 속보치이며, 확보치는 7월말 공표예정

3. 식물검역 상황

최근 주요 신선채소의 주요국에서의 수입식물 검사실적속보는 다음과 같다.

표 5 식물 검역 상황

단위: 톤

		2001.5.21~27	2001.5.28~6.3	2001.6.4~10	2001.6.11~17
파	검사수량	158	140	150	170
	합격수량	48	101	105	64
	불합격수량	109	39	45	106
양파	검사수량	2,533	2,838	4,465	6,818
	합격수량	1,121	2,038	3,864	5,186
	불합격수량	1,412	800	601	1,631
토마토	검사수량	6	26	31	20
	합격수량	6	26	22	20
	불합격수량	0	0	8	0
방울토마토	검사수량	15	2	2	17
	합격수량	15	2	2	13
	불합격수량	0	0	0	4
피망	검사수량	453	581	561	516
	합격수량	449	551	466	424
	불합격수량	4	30	95	92

자료: 농림수산부 식물방역소 조사

주: (1) 주요국(수입검사실적이 많은 국가)의 파, 양파, 토마토, 방울토마토 및 피망 등 수입식물 검사실적 속보치임.

(2) 이 수량은 수입식물검사를 통해 집계한 수량이며, 세관통관통계 수치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3) 「불합격」은 수입검사 결과, 검역유해동식물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불합격되었으며 살충처리 등 소요 검역조치를 통하여 그 후 합격이 된 것이 포함되어 있음.

4. 채소 소비-미국의 채소소비 확대요인-

전호(2001년 5월)에서 미국에서 채소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은 전호에 이어서 미국에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본다.

4.1. 채소소비 확대요인

미국에서 채소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이유로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4.1.1 국민의 건강의식 고조

국민이 건강과 건전한 식생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특히 베이비붐세대(36~54세)는 건강에 관심이 높다. 또, 그들의 자녀들(6~24세)도 부모의 영향으로 채소 섭취에 관심이 높다.

4.1.2 정부 및 건강기관에 의한 활동

채소와 관련된 건강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

- ① 푸드가이드 피라미드(1992년 농업부가 보건부의 협력으로 작성)
- ② 5 A DAY 프로그램(4.2. 참조)
- ③ 디자이너즈 푸드 프로그램(1990년 국립암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시작된 연구를 근거로 발표한 암예방식품계획)

4.1.3 편의성 있는 식재 제공

가공·반가공 등으로 이용하기 쉬운 상품 제공이 늘어나고 있다.

4.1.4 다양한 요리의 섭취기회 증대

외식이나 가정에서 이탈리아요리, 아시아요리, 멕시코요리 등이 보급되어 채소 섭취의 기회가 늘어났다.

4.2. '5 A DAY 프로그램'의 개요

미국 정부 등에 의한 활동 중에서 '5 A DAY 프로그램'이 성공하고 있다. 그 개요를 소개한다. 또, 이것은 5월 18일 도쿄의 오오타(大田) 도매시장에서 개최된 '일본판 5 A DAY 심포지엄'(일간식료신문 주최, 농림수산성 후원)에서 소개된 바 있다.

4.2.1 '5 A DAY 프로그램'이란

'5 A DAY 프로그램'이란 '건강증진을 위해 1일 5서빙(접시) 이상의 채소·과실을 먹자'를 슬로건으로 한 운동이다. 당초 1986년 캘리포니아주 보건부의 소비자 계몽사업으로 출발하였으며, 1991년부터는 전국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4.2.2 캐치프레이즈(5 A DAY)의 특징

- ① 명확하고 기억하기 쉬운 숫자
- ② 달성 가능한 목표수치
- ③ 현실의 평균 섭취량보다 높고, 1일 필요 섭취량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과학적 근거있는 수치

4.2.3 프로그램 전개의 중점은 아동들의 식교육 활동

지역슈퍼마켓에서 사회과 견학(놀이 즐기면서 채소·과일의 영양효과, 명칭, 먹는 방법 등을 학습), 슈퍼 매장에서의 PR 활동

4.2.4 프로그램의 성과

우선 이 운동의 인지도를 보면 1991년 8%에서 1997년 39%로 늘어났으며, 1인당 채소·과실 서빙수는 1991년 3.9 서빙에서 1994년 4.4 서빙으로 늘어나는 등 이 운동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자료: <http://www.maff.go.jp/work/010131seisan/hyousi.htm>에서
(김상현 ksh3615@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대만 WTO 가입에 따른 쌀시장 개방

대만의 2001년 쌀 수확량은 135만 5,000톤, 식부면적은 34만 5,000ha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20년간 대만의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현재 대만은 쌀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WTO에 가입하면 쌀 시장은 개방된다.

2000년도 대만은 4%의 생산조정을 실시한 결과 쌀 식부면적은 34만ha이며, 수확량은 1% 감소하여 134만 2,000톤이었다. 대만에서 쌀 수확량의 내역을 보면, 중립종(medium grain) 자포니카미가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립종 인디카미가 8%, 단립종 인디카미가 1%, 장립종 찰쌀이 3%, 단립종 찰쌀이 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2001년도 대만의 쌀 식부면적은 34만 5,000ha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위면적당 수량이 예년대로라면 총 수확량은 135만 5,000톤에 달할 전망이다.

대만에서는 지난 20년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 감소 원인으로는 소득 상승, 서구적 소비패턴의 확산, 또 곡물을 대신해서 식육 소비량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1990년 1인당 쌀소비량은 65.94kg이었지만 1999년에는 1인당 54.9kg까지 감소하고 있다.

대만 농업위원회(the Council of Agriculture, COA)가 발표한 식품수급표(Taiwan Food Balance Sheet)에 의하면 1999년 대만 국내 쌀 소비량은 150만 8,000톤이다. 국내 총소비량의 내역은 사료용이 18만 7,000톤, 종자용이 1만 5,000톤, 가공용이 8만 6,000톤, 가정소비용이 120만 5,000톤이며, 1만 3,000톤

이 폐기되고 있다. 2000년 및 2001년 대만 국내 쌀 총소비량은 사료용이 10만톤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40만톤이 될 전망이다.

현재 대만의 정부비축미 매입은 COA의 보장매입(guarantee purchase) 프로그램 및 지도매입(guidance purchase) 프로그램만을 통해서 실시되고 있다. 정부비축미는 대만의 식품관리법(the Taiwan Food Administration Law)에 근거, 식량안전보장을 위해 유지되고 있다. 2000년에는 대만산 쌀의 20%가 상기 프로그램에 의해 매입되었다.

정부비축미 가운데 저장기간이 1년이 넘는 것은 식품가공업자 및 수출업자에게 할인가격으로 판매되든가, 사료제조업자에게 사료용 옥수수와 동급의 가격으로 처분되고 있다. 2000년 COA는 대만산 자포니카미를 1톤당 955 US달러로 매입하여, 1톤당 144 US달러로 수출하고 있다. 현재 COA는 쌀 비축량은 35만톤까지의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대만 쌀 수출량 및 사료용 쌀 소비량은 각각 8만 8,000톤이 될 전망이다.

현 시점에서 대만은 찰쌀과 쇄미(碎米)를 제외하고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지금까지 대만은 연평균 4,000톤의 찰쌀을 수입해 왔지만 2000년 수입량은 6,000톤, 수입액은 200만 US달러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대만은 WTO 가입후 1년간 약 12만 7,000톤의 쌀을 MMA로 약속, 수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5%가 정부거래, 35%가 민간거래가 될 예정이다.

대만에서는 쌀의 수입허가를 얻어 COA에 등록된 모든 곡물업자가 쌀 수입할당권의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WTO 가입이후 수입쌀의 마크업(mark-up)은 수입관세율 0%에서 1kg당 최고 0.74 US달러가 될 것이며, 이 가격에서 수입쌀의 시장판매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한 경우, 마크업은 1kg당 0.10 US달러까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資料: <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베트남 쌀 수출강화와 쌀농가 지원대책

베트남은 금년에 400만톤의 쌀을 수출할 전망이다. 베트남 정부는 식품협회(Food Association) 및 쌀 수출업자와 수출쌀거래센터 설치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는 동시에 쌀의 품질향상을 생산자에게 지도하고 있다.

1. 수출계약에 근거한 정부의 쌀농가 지원책

베트남 남부식품회사(Southern Food Corporation, Vinafood 2)는 대필리핀 쌀수출 입찰에서 경합하는 다른 4개국을 누르고 합계 20만톤의 쌀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보다 앞서 베트남 북부식품회사(Northern Food Corporation, Vinafood 1)는 유엔 주도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대이라크 25만톤의 쌀 수출계약을 낙찰하였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금년의 쌀수출할당 및 수출계약을 모두 파기하여 모든 수출업자에게 쌀수출을 인정하는 대담한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 개혁은 세계 쌀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쌀수출을 장려하여 생산자에 의한 지역적인 쌀의 자유거래를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으로 실시된 것이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MARD) 및 무역부(Ministry of Trade, MoT)는 계속해서 업계의 개혁으로 인한 쌀생산자의 이익보호정책을 입안 중이다. MARD는 신규시장 개척, 과학기술 응용 및 투자메커니즘 조정 등 3분야가 새로운 쌀정책의 핵심이라

고 언급하고 있다. 게다가 **MARD**는 식품시장의 운영 및 수급문제 해결을 보조하기 위한 컴퓨터시스템의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 베트남식품협회(Viet Nam Food Association, VFA)는 베트남의 국영기업(SOEs), 협동조합 및 정미업자에게 쌀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이 협회는 정부에 대해 쌀생산자 및 수출업자에게 부과되는 고액의 세금을 경감, 농민의 은행채무 반제지원 및 쌀 신품종 이용기회를 농가에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협회는 베트남 국내시장과 세계시장에서 쌀가격의 차액은 향후도 계속 축소되어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상기 지원책의 운영에는 베트남북부에서 시장관리용으로 대량의 국가비축미가 필요하다. 또, 베트남의 민간기업 및 농장경영자에 대해서는 농가에 특별미를 생산하는 대규모 국영기업의 합병사업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MARD는 2005년까지 베트남의 쌀수출액을 15억US달러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생산농가의 경영유지가 불가결한 조건이다. 무역부는 금년 1분기 베트남 쌀수출량이 전년동기부터 배가하여 약 60~65만톤에 달할 것으로 보고있다.

금년 베트남의 쌀수출량은 4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수출량은 650만톤인 태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쌀수출국 입지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역부는 금년 1분기 베트남의 쌀수출량을 전년동기의 2배인 약 75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베트남의 과일 및 채소 수출량도 전년동기대비 배가하고 있으며, 역시 수산물의 수출량은 42% 증가, 커피는 44% 증가, 석탄은 26.5% 증가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베트남의 쌀수출량은 전년동기대비 77.9% 증가 한 65만 3,000톤, 수출액은 39.8% 증가한 1억 1,400만 US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은 고무, 땅콩, 특정 품종의 차 등 일부 품목은 수출목표를

미달하고 있다. 특히, 커피 및 쌀 상품시장에서는 불안정한 시황이 계속되고 있어 이러한 작물의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2. 농가에 대한 보호대책

이상과 같이 베트남에서 정책전환이 실시된 중요한 이유로서 쌀수출가격의 하락을 들고 있다. 현재 쌀수출가격은 1톤당 167 US달러이지만, 전년 동기대비 3~4 US달러 하락하고 있다. 이 결과 국내시장의 쌀가격도 연쇄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동시에 메콩델타지대의 겨울·봄 쌀 수량이 전년에 비해 1ha당 0.5톤 증가한 것도 가격하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베트남 수상은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베트남 남부식품회사(Vietnam southern Food Corporation) 및 메콩델타지대의 관련식품기업에 대해 3월 10일에서 5월 10일간 100만톤의 쌀을 매입하도록 긴급지령을 발표하고 있다. 이 매입에서 은행의 차입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3월 10일부터 6개월 간 이자를 부담하기로 한다. 이번의 일시적인 쌀매입프로그램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3월 16일부로 정부통달 제192호(Government Note 192 of March)에 고시하고 있다. 이 통달에서는 수도미의 최저가격을 1킬로그램당 1,300 베트남돈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메콩델타지대 농가에 대해 6월 이후의 농업세 납부를 일시 면제하고 있다.

2.1. 판매촉진과 비용감축

베트남 정부는 수도미의 일시적 매입 이외에도 농가의 손실을 상쇄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검토하는 중이다. 금년 초부터 농업농촌개발부 및 무역부는 2개조의 차관급 무역사절단을 필리핀에 파견, 현지 쌀수입업자와 협상하고 있다. 또, 무역부는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에도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무역부에 대해 식품협회 및 쌀수출업자와 수출쌀거래센터 설치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거래센터의 설치목적은 식품협회 및 수출업자의 이익보호를 들 수 있다. 또, 정부는 재무부 장관에 대해 3월 15일부터 베트남의 수출입관세 및 수입 비료에 부과되는 가격차별부가가치세(price differential surtax)를 인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 외에 특별할 만한 정책으로서는 무역부가 가장 업적을 올린 쌀수출업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또, 정부당국은 베트남의 식량안전보장을 위해 관세조정을 통한 쌀수출 운영계획을 입안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의 쌀 수출세율은 0%이지만, 세계시장에서 쌀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국내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세를 인상할 것이 확실하다.

2.2. 품질향상과 가격개선

현재, 베트남 수출미의 등급은 국제적인 바이어의 의향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베트남은 쌀의 생산 및 가공 단계에서 품질향상대책을 채택하지 않은 상태이다.

베트남 수출미의 또 다른 문제점은 종류가 적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쌀수출량 660만톤 가운데 백미(white rice)가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40%에 불과하며, 나머지 60%의 대부분은 다양한 종류의 쌀을 수출하고 있는데 비해 베트남에서는 수출미의 약 99%가 백미이다.

더욱이 베트남에서는 신기술 도입에 의한 생산비용 감축이 요구되고 있다. 베트남의 안장(An Giang)주에서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이 주의 쌀생산비는 최신 과학기술로 인해 1kg당 750~800 베트남돈 절감하고 있다.

이 외에 베트남에서 쌀의 생산성 및 품질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으로는 적절한 시장전략의 결여에다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과잉 관료주의, 취약한 인프라, 높은 인구밀도 등을 들 수 있다.

3. 자유무역에 수반되는 문제의 표면화와 농가에 의한 생산 성향상 추진

2006년 베트남은 아세안자유무역협정(ASEAN Free Agreement, AFTA)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로써 베트남의 농가 및 정부당국은 공동으로 업계내의 문제해결 및 수출경쟁력의 유지에 조속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또, 베트남은 보다 유리한 고부가가치 식품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가공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증액이 필요시 되고 있다.

베트남이 자유무역협정 참가를 받아들인 것으로 농업부문의 수출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한편으로 업계의 결점도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농업생산성은 극히 낮고, 국내 농가는 고품질의 종자 및 교배종의 입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는 종종 열악한 종자 및 교배종을 사용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베트남의 축산물 및 작물의 생산성 및 품질이 저하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농가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마케팅 개선을 추구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정부는 관료주의 폐해의 해소, 인프라 개선 및 농가의 생산성향상 대책에 대한 지원책의 실시가 요구되고 있다. 베트남의 농산물가공기술은 경쟁상대국에 크게 뒤떨어져 있다. 때문에 베트남산 상품은 일본, EU, 미국 등의 시장에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베트남의 손코인하천 델타지대(Red River Delta)에서 토마토의 생산성 수준은 세계평균 65%에 그치고 있으며, 또 고무농원에서 라텍스(latex)의 생산량은 다른 생산국이 1ha당 1.5~1.8톤인데 비해 베트남에서는 1ha당 1.1톤에 불과하다. 더욱이 베트남이 생산국으로서 가장 유명한 작물조차 경쟁상대국에 자리를 뺏기고 있다.

베트남산 쌀수출가격은 태국산 쌀가격을 평균 1톤당 30 US달러 하회하고 있다. 베트남은 쌀 노동력으로 가격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점은 주변지역의 통화 평가절하로 인해 축소되고 있다. 한편, 고수익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수요가 적은 시장인 러시아 및 중국에서는 베트남산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베트남은 정부의 시장지향형 정책으로 인해 농업설비 및 농업기계 비용이 저하할 전망이며, 이것은 농업기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베트남 농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資料: <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2001...>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베트남 과일·채소 10억불 수출목표

베트남은 2010년에 신선과일·채소 및 가공품의 수출액이 금년보다 5배 증가한 10억 US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생산자의 신규시장 개척과 첨단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원예산업의 ‘황금기’였던 1980년대에 과일·채소 및 그 가공품의 연간 수출량은 30만톤, 수출액은 1억US달러에 달하였고, 국내 과일·채소 생산량에 차지하는 수출량은 3.1%에 불과하였다. 베트남은 비옥한 토지와 지형 조건과 다양한 기상조건으로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풍부한 종류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상기의 예상 실적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베트남의 주요 수출작물에는 양배추, 토마토, 오이, 고추, 후추, 바나나, 망고, 료우간(longan), 란브탄 및 텐난쇼(dragon fruit) 등이 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작물의 재배규모가 작는데다가 주요 산지가 존재하지 않고, 불량종자 선정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확한 작물 가운데 국제기준에 달하지 않는 저급 품질도 상당히 많다. 또, 낙후된 기술도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베트남에서 60개소 있는 과일·채소 가공공장은 모두 80년대부터 조업하고 있으며, 추가공능력은 15만톤 정도이다. 이러한 가공공장은 원료를 과잉 사용하는데다 환경오염원이 되고있어 생산에 접합하지 않는 면도 있다. 예를 들면, 베트남의 파인애플 통조림은 1980년대 시설로 제조되고 있

으며, 파인애플의 신선과일중량의 3분의 1밖에 가공할 수 없고, 나머지 3분의 2는 폐기처분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베트남의 과일·채소 수출량은 1990년대 초반의 구소련 및 기타 동구제국 등 지금까지의 시장을 잃어버린 후 대폭 감소하였다. 베트남의 생산자 및 수출업자는 모두 1994년 초반에 경제가 회복하기까지 업계에서 살아 남는 데 고심하여 수출업자는 중국과의 소량 거래에 의지하여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있었다.

베트남의 원예산업은 고도 기술과 보다 많은 투자자금을 획득할 목적으로 외국 기업과 제휴를 시도하고 있다. 그 결과, 베트남 수출업자는 일본, 대만, 호주, 프랑스, 스페인, EU 및 미국을 비롯한 수출조건이 엄격한 시장으로 진출이 가능해지고 있다. 그러나, 과일·채소 수출액이 거의 배증하고 있으나, 수출량은 1980년대 최고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연간 10만톤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작년 9월, 베트남 정부는 과일·채소업계의 성장촉진을 목적으로 한 전국규모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베트남의 과일·채소 수출액을 작년 1억 500만 달러에서 90.5% 증가, 1988년과 비교하면 200% 증가한 2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새로운 마케팅방식의 채용과 국내 농업의 최대 약점인 농산물저장시설 및 가공시설에 대해 중점적인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이 결과, 베트남에서는 연간 1만 2,000톤의 생산능력을 가진 3개소의 농축주스 생산라인 및 연간 2만톤의 생산능력을 가진 2개소의 채소통조림 생산라인이 최근 조업을 개시하고 있다. 더욱이 가까운 장래에는 연간 8만톤의 생산능력을 가진 15개소의 농축주스 생산라인이 조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 연간 4만톤의 생산량이 예상되고 있는 채소통조림 제조공장이 새롭게 5개소에서 동시에 조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공시설의 신설에 추가하여 개별급속냉동(individual quickly frozen, IQF) 설비 등의 저장기술이 전국의 과일·채소 생산거점에 제공될 예정이다. 또, 생산자는 가공시설에 인접한 지역에 과일·채소의 보다 집중적인 산지를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농업부문 시장화의 방안으로서 일본, 한국, 대만 및 스리랑카 등과 같이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상인(merchant), 거래업자, 또는 협동조합에 판매하고, 그 후 중앙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의 경매에서 소매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계획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10년 후에는 베트남의 농산물 수출액은 목표인 1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더욱이 업계에서는 농업생산 및 수출기구 전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주로 세관개혁 및 행정개혁을 통해서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산 과일 및 채소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다. 중국은 품질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진출하기 쉬운 시장이기도 하다. 수출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베트남은 이 시장에서 수억US달러의 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국 수출액은 작년 1억 US달러를 넘었다. 이것은 전년의 3배에 해당한다.

중국이 최근 베트남의 주요 수출 상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중국은 시장규모가 크고, 베트남에서 수송조건도 양호하다. 또, 중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품질요건이 너무 엄격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은 과일의 가공과 보존기술이 뛰어나다. 양국의 오랜 협력관계(파트너십)가 유지되어 베트남은 신선 및 반가공 과일을 중국에 판매할 기회가 확대되었다.
- (2) 국내 소비용 외에 중국은 다른 외국에 수출하는 가공품으로 과일 및 채소를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은 베트남산을 가공한 후 당초 가격보다도 2배 또는 3배나 높은 가격으로 수출하고 있다.

- (3) 중국은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 채소의 수출세는 현재 7%정도이며, 양송이, 버섯, 죽순, 건조양파 등의 수입세는 최저의 경우에도 80~90%에 이르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에서 최혜국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산 과일과 채소 수입세는 13~50%이다.
- (4) 중국은 베트남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수송비가 극히 싸다. 베트남에서 중국에 수출되고 있는 과일과 채소의 대부분은 재가공 후에 다시 수출되고 있으며, 러시아 및 미국, 일본 등의 대규모 시장에 판매되는 것도 적지 않다. 그러나 중국당국은 이처럼 제품에 그다지 엄격한 품질검사 및 엄격한 검역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자료: <http://www.maff.go.jp/soshiki/keizai/kikaku/2001...>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태국 북한과의 쌀수출협상 결렬

태국의 대북한 쌀 수출협상이 결렬되었다. 북한 무역대표단은 태국에서 50만톤의 쌀을 7,000만 US달러로 신용 구매하는 계약체결을 희망하였으나, 태국 대표단은 1993년과 1995년의 쌀 수출시 총액 1억 2,000만 US달러의 채무가 아직 미지불 상태인 것을 이유로 이 신청을 거부하였다. 현재 태국 국내시장에서 쌀은 남아돌고 있지만, 수출업자는 이번 협상결렬이 금년 쌀수출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태국과 북한간에 이루어진 쌀 무역협상은 대금 지불조건을 둘러싸고 결렬되었다. 4월 28일부터 5월 2일간에 걸친 협상에서 북한 무역대표단은 태국에서 50만톤의 쌀을 수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때 북한측은 5% 및 10%의 등급미(grade rice)를 1톤당 140 US달러, 총액 7,000만 US달러에 대하여 신용조건으로 수입계약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태국 통상부 장관(Commerce Minister)은 북한이 1993년과 1995년 쌀수입에 따른 총액 1억 6,000만 US달러의 채무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번 제안을 거부하였다.

현재 태국 국내시장에서 쌀은 약간 과잉이다. 태국의 쌀수출업자는 북한과의 협상결렬로 인해 수출에 큰 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것은 태국에서 북한은 쌀의 주요 수출국이 아니며, 보조적인 시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금년 1~4월 태국의 쌀수출량은 전년동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192만

톤에 달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북한용 수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도 태국의 금년 쌀수출 목표인 600만톤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덧붙여서 한국은 작년에 북한 원조목적으로 태국에서 20만톤의 쌀을 수입하였으며, 이것을 포함한 작년 태국의 쌀 수출량은 650톤에 달하였다.

업계 전문가는 현재의 가격동향을 고려하면 태국 정부는 재고미 수출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는 정부가 과잉 재고미를 수출업자에게 양질인 것부터 우선적으로 불하 하든가, 또는 현재의 재고를 업자 자신의 책임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현재 태국이 국내시장에서 수도미와 백미의 거래는 순조롭지 못하며, 향기미의 가격은 1톤당 130~140 US달러로 거래량은 소규모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는 정부의 재고미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민간 수출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 <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2001...>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미국 농업정책의 왜곡성

OECD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 EU와 미국의 농업보조금은 각각 1,030억 달러, 920억 달러로서 이는 GDP의 1.32%, 0.92%에 상당하는 수준이다. 최근 미국 농정에 관한 모순점을 해외보도 등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1. 디카플 정책인가 아닌가

미국 농정은 디카플(생산에서 독립된) 지지정책을 채용하고 있다고 미국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규모 농가의 수익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을 상회하는 충분한 가격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농산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농업예산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유럽과 같이 지역사회지원을 위한 거액의 보조정책을 정치가가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 지역사회의 중핵이 되고 있는 가족농가가 지원되는 한 정당화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족경영에 대한 지원이 아닌 농산물의 4분의 3을 생산하는 대규모 농가의 수익을 늘리는 결과가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보아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정책의 왜곡은 공화·민주 양당의 경쟁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미국의 농업정책은 점차 궤도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상은 공화당 정권의 농업부 차관에 취임한 미국 농업관계 경제학자 J. B. 팬씨의 주장이다.

2. 1996년 농업법과 소득보상의 실상

농업부문의 기능·성과·경제상황에 관해서 여전히 부정확한 정보가 많다. 이런 경향이 계속되면 신정권에 있어서 농업부문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한 정책결정으로 국제경쟁력을 약화하고, 예산비용을 높여 농업부문의 취약성을 한층 높이는 것이 된다.

미국 농업정책의 불균형의 원천은 1996년 농업법에 있다. 이 법은 생산조정을 중지하고 농지의 활용을 도모한 것이다. 시기적으로 국제적인 곡물가격의 상승시기와 일치한 것에서 10년전의 수준을 대폭 초과한 증산을 가져왔다.

그러나 증산 열풍은 동남아시아의 경제위기에 의해 급속히 종료되었다. 따라서 수요감소와 재고증가로 국제가격은 하락하였다.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정책이 계속되어 판매가격은 유지되고 생산은 그다지 감소하지 않았다.

정치가들 중에서는 농업부문의 심각한 경제상황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도 출현하였다. 현재, 미국 농업은 숫자상으로는 확대와 번영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미국 농업에 대해 심각한 경제상황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매스컴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및 가족농업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생산은 감소지 않고 있다. 생산점유율이 높은 대규모 농가의 투자욕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3. 소규모 농가와 차기 농업법 검토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의 농업정책은 농업부문이 지금과 같은 낮은 수준의 가격에서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좁은 농지에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까하는 전통적인 소규모 농가의 전설은 매스컴의 관심을 끌고 정치적으로도 좋은 수단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정책으로 연결되는 점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과 다르며 예산의 필요성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임 농업부 차관은 미국의 190만 농가를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표 1>.

농업생산의 최대 시장점유율을 가진 것이 대규모 경영농가이다. 그 수는 15만 7천호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8%에 불과하지만 연간 판매액은 평균 90만 달러를 초과하며, 전체 생산액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농가는 효율적이며 수익률도 높다.

겸업농가의 경우, 수입의 75%는 농외수입이다. 또, 공식적으로 농가로 승인되고 있는 대다수는 농업 비율이 낮아 취미로 하고 있는 취미농가이다.

표 1 미국의 농가유형과 점유율

	농가수(천호)	농가비율(%)	생산액점유율(%)
대규모경영농가	157	8	72
겸업농가	189	10	15
취미농가	1,570	82	13

약 160만호의 농가는 1만 6천 달러미만의 판매액이고, 수입의 대부분은 농외수입이다. 유럽과 같이 이러한 다수의 소득이 낮은 농가의 경제상황에 의하여 거액의 왜곡적 농업정책이 정당화되고 있다.

부시정권에서 농업정책에 관한 실질적인 분석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 3년간 당연시되어 왔지만, 극히 거액의 긴급농가지원을 향후에도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현행 농업법을 대신하는 새로운 농업법의 제정도 논의되고 있다. 단일의 포괄적인 시장주의인 현재의 농업정책은 지역사회의 요망에 대응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농업부 차관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종래와 같은 무제한의 농업지원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資料: JA全中, 「國際食料レター」, no. 73(2001年 6月)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미국 남미산 포도에 대한 덤핑조사

미국에서 4~6월에 수입되는 칠레산 및 멕시코산 신선포도를 상대로 덤핑 소송이 개시되었다. 이 건은 양국산과 정면 경합하는 캘리포니아주 남부사막지구 신선포도 생산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향후 미국 연방상무부의 조사 결과, 이들의 주장이 정당화 될 경우 빠르면 내년초에 덤핑보복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²⁾.

캘리포니아주 남부사막지구의 신선포도생산자로 구성된 ‘사막포도생산자연맹’(Desert Grape Growers League, DGGL)은 미국 연방상무부 및 국제무역위원회에 대하여 부당하게 싼 신선포도의 수입이 증가하여, 미국 조생포도산업이 현저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해 춘기에 수입되는 신선포도를 대상으로 한 반덤핑 과세를 실시하도록 요청하였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신선포도는 95% 정도가 칠레산과 멕시코산이다. 칠레산은 12월부터 4월, 멕시코산은 5월부터 7월에 집중 수입되고 있으며, 이것은 4월말부터 7월초순을 주요 출하기로 하는 캘리포니아주 남부사막지구산인 조생 포도와 정면으로 경합하고 있다.

로버트 비안코 DGGL 회장에 의하면, 2000년 4월부터 6월에 미국으로

-
- 2) 이 후 6월 11일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보고가 나와 있으며, 이에 의하면 칠레, 멕시코산 포도 수입으로 미국 포도생산자 등이 손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고 되어 있어 과세는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수입된 신선포도는 1999년 동기대비 약 30% 상회하는 14만 6,000톤인 한편, 가격은 약 40% 하락하여, 이 시기에 출하되는 미국산 신선포도의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정도로 싼 수입품의 유입이 계속되면 캘리포니아주 남부사막지구에서 신선포도생산은 완전 폐업에 이른다고 비안코 회장은 경고하고 있다. 4월부터 6월의 미국내 신선포도시장에서 국내산 점유율은 과거 수년간 계속 하락하여 2000년에는 사상 최저인 30%까지 떨어지고 있다.

금년 3월 30일 연방상무부에 제출된 DGGL의 덤핑조사요청서는 5월 9일부로 정식 수리되어 본격적인 조사가 개시되었다. 이 조사 결과, 칠레산 및 멕시코산의 덤핑이 입증되면 내년 1월말까지 덤핑보복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資料: <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EU 광우병피해 농가에 특별소득지원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6개국 정부가 2000년 11월부터 2001년 6월 사이에 광우병 사태로 인해 소득손실을 입었던 비육우 사육 농민들에게 총 4억 1800만 Euro에 달하는 소득지원금을 지불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EU 회원국 정부가 그러한 형태의 소득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쇠고기 시장 부문에서 현재의 위기가 매우 예외적인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지원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이탈리아와 독일에 대해 광우병이 발생한 지역의 농장에 대한 송아지 입식자금 지원과 같은, 광우병과 관련한 주정부 차원의 일련의 기타 지원시책을 승인하였다. 이러한 주정부 차원의 지원규모는 약 9200만 Euro에 달한다.

EU 집행위원회 농업위원장 프란츠 피슐러는 “쇠고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속적이고 예외적인 현재의 위기상황은 이와 같은 특별한 국가적 지원 조치를 정당화한다. 오늘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6월에 유럽의회 농업분과위원회가 채택하였던 치명적 피해를 입은 소 사육 농민들을 위한 정책수단들을 보완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이러한 소득지원 및 주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한 명료한 규칙 안에서 육우 사육 농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더 나은 전망을 주고자 함에 있다”라고 말했다. EU가 승인한 소득지원 규모를 회원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오스트리아

1개 주(Kärnten 주)에 대해 약 290만 Euro의 소득지원금을 주정부가 지

출하는 것이 승인되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또한 약 69만 Euro에 달하는 판촉 캠페인 활동 사업도 승인하였다.

(2) 벨기에

약 2970만 Euro의 소득지원 승인. 현재 3000만 Euro에 달하는 2차 소득지원 계획의 세부내용이 작성되고 집행위원회에 제출되었다.

(3) 프랑스

여러 가지 복잡한 계획을 통해 소득지원이 이루어질 것인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분명하게 밝힌 소득지원 규모는 약 2억 5900만 Euro에 달한다. 여기에는 약 1억 5240만 Euro의 직접지원금과 4570만 Euro에 달하는 경영체 정리 융자금이 포함되어 있다.

(4) 독일

4개의 주에서 각각 지원이 이루어진다. 바이에른 주에서는 약 2800만 Euro의 소득지원이 승인되었으며, 아울러 사료검사비용으로 약 100만 Euro의 추가적인 지원도 승인되었다. 그리고 뒤이어 주정부 차원에서 폐기처분되어야 하는 동물 사료에 대한 보상으로 1000만 Euro의 지원과 광우병이 발견되었던 농장의 농민들에 대한 600만 Euro의 지원이 승인되었다. 튀링겐 주에서는 약 400만 Euro의 소득지원이 승인되었다. 니더작센 주에서는 약 500만 Euro의 소득지원이 승인되었다. 작센 주에서는 공공기관이 가축들을 회수, 격리조치한 농장들에 대해 송아지 입식자금으로 약 200만 Euro의 지원이 승인되었다.

(5) 이탈리아

공식적으로 발표된 지원 예산규모는 약 2550만 Euro에 달한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소득지원 규모는 약 7700만 Euro를 상회하고 있다. 이 계획과는 별도로 광우병 발생 농장 보상, 송아지입식 지원, ‘살처분을 위한 구매자금’ 과 같은 주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다. 7700만 Euro의 소

득지원을 포함, 총 지원규모는 약 1억 5000만 Euro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6) 스페인

두 지역에서 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스투리아 지역에서 약 600만 Euro, 칸타브리아 지역에서 약 598만 Euro의 소득지원이 이루어진다.

EU 회원국들이 도입하고 EU 집행위원회가 적용하고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에 관한 규정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회원국 정부가 농민들에 대한 소득지원을 금하고 있다. 이는 그러한 지원이 유럽연합 시장조직 기능에 개입하고, 시장경쟁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그러한 상황이 초래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연말 광우병 사태로 인해 초래된 쇠고기 시장의 지속적인 위기가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판매 또는 수익률 하락 그 자체를 예외적인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격 유동은 특정 농업부문에서 널리 알려진 주기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현재의 쇠고기 판매 저조를 예외적이고 보기 드문 일련의 사건들이 결합되어 일어난 결과로서 농가소득 손실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일련의 사건이란 쇠고기 수출시장에의 유럽 진출 봉쇄, 유럽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반응 같은 것들을 말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원 규모가 쇠고기 부문에서의 손실규모와 일치하는 지를 입증했다. 원칙적으로 손실은 이전 여러 달에 걸친 위기 기간 동안의 쇠고기 산지가격과 정육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측정되었다. 그리고 집행위원회는 농민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 조건이 개별 농민 수준에서의 과잉보상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이번의 지원승인 결정에서는 과잉보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던 것이다.

자료: EU Commission, DG for Agriculture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지역아카데미)

독일 유기농업의 성장과 전망

독일은 유럽에서 농산물 수출입 규모가 가장 큰 나라이다. 전체 농경지 면적은 1736만 ha인데 총 국토면적의 48%에 해당된다. 평균 농장규모는 구 서독 지역의 경우 29ha, 구 동독 지역의 경우 201ha이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최근 유기농업은 빠른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8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농장 중 1.8%가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유럽의 평균치와 일치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독일 유기농업의 간략한 역사와 현황, 장래 전망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독일 유기농업의 역사와 발전

독일의 유기농업은 생명동태농업(bio-dynamic agriculture)과 유기생물농업(organic-biological agriculture)에 크게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다. 모든 형태의 생태학적·생물학적 농업을 두고 독일에서는 ökologischer Landbau(생태·유기·생물학적 농업)이라고 부른다.

1.1. 생명동태농업

생명동태농업은 Rudolf Steiner(1861-1925)가 1924년 초에 최초로 정립한 것이다. 그는 영농의 정신적인 토대에 대한 8가지 제언을 하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생명동태농업이라 불리게 되었다. Steiner에 따르면 농장은 살아 있는 존재 - 유기체 - 이며 동시에 비물질적인 것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영향력은 이른바 ‘동태적 힘(dynamic force)’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생명동태적인 처방에 의해 증진된다는 것이다. ‘Forschungsring für Biologisch-Dynamische Wirtschaftsweise(생명동태농법 연구 그룹)’이라는 단체가 결성되어 있다. 1954년에 설립된 ‘Demeter-Bund(데메테르 연합)’이 생명동태농업에 대한 인증활동을 하고 있다. 이 조직은 독일의 유기농업단체들의 연합조직인 AGÖL의 회원단체이다.

1.2. 유기 · 생물 농업

유기 · 생물농업은 스위스에서 Hans Mueller(1891-1988)와 그의 부인인 Maria Mueller(1894-1969)가 발전시킨 것이다. 1920년대 초반 그들은 가족 농을 유지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30년대에 Hans Mueller는 생명동태농업에 영향을 받았고, 1950년대에 들어서는 유기 · 생물농업을 발전시켰다. 독일의 의학박사이자 미생물학자인 Hans-Peter Rusch(1906-1977)가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1.3. 첫번째 성장시기(1968-1988)

1960년대 말에 산업적 영농과 공해가 안겨 준 환경에의 부정적인 효과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1961년부터 ‘Arbeitsgemeinschaft für naturnahen Obst-, Gemüse- und Feldfruchtanbau(ANOG, 유기농 과일, 채소, 밭작물 경작 연합)’이라는 조직이 이미 설립되어 있었으며, 1971년에는 Bioland라는 생산자 조직이 설립되었다.

1975년 이후부터는 ‘Stiftung Ökologie & Landbau(SÖL, 농업생태학 재단)’이 유기농업에 대한 경험과 정보의 교환을 주로 출판사업을 통해 촉진하였다. SÖL은 그 초기부터 IFOAM(국제유기농운동연합)의 발전을 뒷받침했다. 이 시기에는 농업 전문가들이 유기농업이 성공적으로 실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 중요했다. 나중에는 더욱 많은 생산자 조직들이 결성되었다.

1.4. 두번째 성장시기(1988-현재)

AGÖL은 SÖL의 주도하에 6개의 생산자 조직들(Demeter, Bioland, ANOG, Biokreis, Naturland, Ecovin)의 연합조직으로 1988년에 결성되었다. 1984년에 이미 생산자 조직들 간에 ‘공통의 기본기준(Rahmenrichtlinien)’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 기준은 개별 생산자 조직들이 준수해야 할 기본틀을 정립하는 토대가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유기농업은 매우 빠르게 확산되었다. 1989년 이후부터 추진된 EU의 조방화 프로그램과 그보다 후의 EU 규정 2078/92에 의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이러한 발전을 촉진하였다. 그리고 1990년의 독일 통일 이후 유기농업은 더욱 빠르게 확산되었다. 유기농업은 구 동독에서는 허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동독에서도 매우 극소수의 농장들이 유기농법을 실천하고는 있었다. 독일에서의 유기농업이 이루어지는 경지와 유기농산물 시장은 현재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같은 나라보다는 다소 더딘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Forsa, Gesellschaft für Sozialforschung(사회조사연구학회)’가 1997년에 1,000명의 독일인들을 대상으로 유기농산물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바 있다. 그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더욱 많은 유기농 식품을 구매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유기농산물의 순수성에 대한 신뢰 부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부족, 가공유기농산물의 부족, 비싼 가격 등이었다. 그러나 모든 응답자들이 장래에는 더 많은 유기농산물을 구매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건강이나 환경과 관련된 이유와 더 좋은 맛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유기농 시장의 심화 발전에 작용하는 긍정적인 요인들로는 활용 가능한 유기농산물의 다양화, 더욱 많은 슈퍼마켓들이 유기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 유기농산물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유기농산물 시장의 심화 발전을 제약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유기농산물의 국제교역 부문에서 거래 당사국들 간에 공통된 보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통계로 본 독일 유기농업의 발전상

1998년 말의 독일 당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독일에는 9,200명의 유기농 생산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이는 1997년의 그것보다 12.6%가 더 많은 수치이다), 이들이 경작하는 재배면적은 41만 6500ha(1997년 대비 6.9% 증가)에 달하였다. 유기농가들의 약 80% 정도가 AGÖL에 소속되어 있었다.

2000년 초에는 7,464개의 농장들이 9개의 생산자 조직들 중 하나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관리하는 경지면적은 38만 3752ha였다. 800개의 가공부문 기업들이 생산자 조직들에 의해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3. 기준과 품질인증 : EU 규정과 AGÖL 기준

유기농 생산에 관한 AGÖL의 기준은 여러 측면에서 EU의 규정(Council Regulation EEC 2092/91)보다 더욱 엄격하다. 예를 들어 AGÖL의 기준은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면 농장 전체가 유기농업으로 전환되어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공의 측면에서 보면, 특정 목적을 위한 효소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AGÖL 기준의 허용목록이 더욱 까다롭다.

유기농장이나 검사를 할 때에는 EU 규정에 따라 민간의 기준(AGÖL, 1996)과 국가의 기준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독일에서 국가가 승인하고 감독하는 민간 검사기구는 때때로 그 두 가지 기준 모두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1999년 7월 19일, EU 농업장관회의는 유기축산에 관한 EU 규정(Council Regulation 1804/1999)을 통과시켰다. 이 규정은 유기농업에 있어 유전공학

적으로 처리된 유기물과 유전공학 기술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EU 규정 2092/91이 발효된 이후 많은 농민들과 가공업자들이 기존의 생산자 조직에 가입하지 않고서도 유기농 생산을 시작하였다.

4. 검사기구와 관련 국가기관

독일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EU 규정 2092/91을 수행하기 위해 22개의 주 당국이 그 사무를 위임받아 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22개 이상의 민간 검사기구를 감독할 책무를 지고 있다.

2개의 작업그룹, ‘Konferenz der Kontrollstellen(KdK, 검사기구 회의)’와 ‘Arbeitsgemeinschaft der Kontrollstellen(검사기구 작업그룹)’을 통해 검사기구들간의 업무 협조와 조정이 이루어진다.

5. 토지 이용과 유기 축산

독일의 유기농업과 관련된 토지이용과 가축사육 실태는 다음과 같다.

표 1 AGÖL 소속 농장들의 유기농 토지이용 실태(1997/1998)

	면적(ha)	총경지면적에 차지하는 비중(%)
농지면적	354,006	100.0
경종작물 재배면적	175,450	49.6
영구 초지	155,705	44.0
특수 작물	9,055	2.6

주: AGÖL의 소속 농장 수는 6,793개이다.

자료: Stiftung Ökologie & Landbau(SÖL), Bad Dürkheim, Germany, 2000.

표 2 AGÖL 소속 농장들의 작부유형(1997/1998)

단위: ha, %

작물		면적	AGÖL 관리면적 중 비중	작물		면적	AGÖL 관리면적 중 비중
곡류	겨울밀	21,240	6.0	유 지 류	평지 해바라기	3,027 818	
	봄밀	4,155	1.2		소계(유지류)	9,115	
	호밀	26,655	7.5	클로버, 목초	27,255	7.7	
	라이밀	6,087	1.7				
	겨울보리	4,940	1.4	대마	269	0.1	
	봄보리	5,532	1.6				
	스펠트밀	6,054	1.7				
	귀리	11,642	3.3	채 소 류	가공용채소	504	
	소계(곡류)	89,834	25.4		당근	666	
옥수수	574	0.2	양배추		186		
메이즐린	1,874	0.5	양파		206		
				근대	381		
콩과 작물	발콩	2,139		소계(채소류)		4,408	1.2
	완두콩	6,522		과 일 류	가공용과일	460	
	장류콩	134			배	393	
소계(콩류)	14,858	4.2	소과류	127			
서류	감자	4,119		허브	267		
	사탕무우	149		소계(과일류)	2,710	0.8	
계(서류)	4,371	1.2	포도		1,578	0.4	
사일리지용옥수수	2,357	0.7	총계		354,006		

주: (1) AGÖL의 소속 농장 수는 6,793개이다.
 (2) 라이밀은 밀과 호밀의 교배종이다.
 (3) 스펠트밀은 독일에서 재배되는 밀의 일종으로 가축사료용으로 쓰인다.
 (4) 메이즐린은 밀과 호밀을 섞어 키운 잡곡을 말한다.
 자료: Stiftung Ökologie & Landbau(SÖL), Bad Dürkheim, Germany, 2000.

표 3 AGÖL 소속 농장에서의 유기 축산 (1999)

종류		사육두수
소	젓소	70,341
	송아지	61,158
소계(소 : 비육우 포함)		249,858
돼지	수퐁지	272
	어린 암퐁지	4,519
	모돈	37,903
소계(돼지)		54,058
양		101,075
염소		10,811
가금		803,829

자료: Stiftung Ökologie & Landbau(SÖL), Bad Dürkheim, Germany, 2000.

6. 마케팅 경로와 인증제도

독일에서 유기농산물의 마케팅 경로는 다양화되어 있다. 1999년에 조사된 바로는 1997년의 유기농산물 마케팅을 통한 총수익은 거의 40억 DM (약 20억 Euro)에 달하고 있었다. 자연식품 점포가 마케팅 물량의 약 1/3 정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슈퍼마켓이 1/4, 직판(농장직영 점포 또는 파머스마켓)이 1/5, 건강식품 상점이나 빵집 혹은 정육점이 약 1/10을 담당하고 있다. 많은 유기농 특산물(포도주, 홍차, 커피)들 또한 우편주문 전문회사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많은 유기농산물들 또한 수입되고 있다.

독일에서 가장 큰 농업박람회인 Grüne Woche가 2000년에 베를린에서 개최되었을 때, 유기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표시(Öko-Prüfzeichen)를 부착한 최초의 상품이 대중들에게 선보여졌다. 이 로고는 AGÖL과 CMA(독일 농산

물을 판촉하는 준 국가기관)의 협동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Duetscher Bauernverband(DBV, 독일 농민연합)’ 또한 이 로고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화된 자연식품매장보다는 슈퍼마켓에서 주로 유기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 이 이제 진정한 유기농산물을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표시는 AGÖL이나 AGÖL/PoeP 기준, 또는 EU 기준에 따라 생산되거나 가공된 상품들에 적용된다.

7. 유기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

7.1. 유기농 생산자에 대한 지원

독일에서 유기농민들은 1989년 이후부터 금융지원을 받아왔다. 1989년 이후부터 유럽연합의 조방화 프로그램에 의해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농민들에게 지원이 주어졌다. 환경보호와 농촌유지라는 필요성과 양립 가능한 농업생산방법에 대한 EU 규정 2078/92에 따른 그 후속 지원 프로그램이 1994년에 시작되었다. 이러한 지원의 결과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는 유기농가들이 급증하였으며, 유기농산물 공급이 증가하였다.

연방제 국가인 독일 정치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모든 주들은 이러한 규정 하에 유기농업을 지원할 수 있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만 한다. 조방화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이러한 규정은 기존의 유기농민들도 지원한다. 경작지와 초지에 대한 보조금은 ha 당 약 125 Euro, 1년생 작물에 대해서는 약 125 Euro(기존 유기농가의 경우 100 Euro), 다년생 작물의 경우에는 600 Euro(기존 유기농가의 경우 500 Euro)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주 정부는 지역 상황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액수를 20%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하거나 4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현재 그 내용이 수정되고 있다. 지원은 ‘의제 2000

에 따른 농촌개발 규정(Rural Development Regulation of Agenda 2000)'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7.2. 유기농에 대한 기타 주정부 차원의 지원

유기농민들에 대한 직접 보조금 말고도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1999년 말에 수정된 '유기농산물 마케팅 촉진에 대한 지침'에 따라, 생산자들에 기초한 마케팅 조직이 유기농산물 가공 또는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지원은 독일의 모든 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많은 주들이 유기농산물 마케팅이나 유기농 관련 기타 분야에 대한 독자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발전시켜가고 있다.

8. 독일 유기농업에 남겨진 과제

다음은 SÖL이 제안하고 있는 현재 독일 유기농업의 당면 과제이다.

- (1) 유기농업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발전과 성장의 여지가 남겨져야 한다.
- (2) 유기농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의 실제 경험이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유기농업과 관련된 정치적 토론이나 법률이나 규정 관련 토론에서 그들의 경험이 활용되어야만 한다.
- (3) 현장에서의 영농활동과의 대화가 병행되는 연구와 개발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4) 유기농업은 특히 집약농업과 비교하여 명료한 특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또한 정부지원이나 공공적인 홍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5) 새로운 마케팅 경로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 (6) 유기농업은 지속 가능한 개발과 결합되어야 한다.

자료: <http://www.organic-europe.net>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지역아카데미)

덴마크 유기농업의 성장과 전망

덴마크는 유럽에서 유기농업이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다. 인구 500만명에 불과한 작은 국가이지만 농산물 생산과 가공부문에 있어 선진화된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크다. 덴마크 농민들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그 양은 자급하기에 충분하다. 이는 덴마크의 농산물 중 많은 양들이 수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양돈과 낙농이 농업부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수출분야이며 소나 돼지의 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용도로 경작되고 있는 면적이 덴마크의 총 경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유기농업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유기농업 현황과 전망을 살펴볼 때 가장 먼저 거론되어야 하는 선도적인 국가가 바로 덴마크일 것이다.

1. 덴마크 유기농업의 발전

덴마크 유기농업은 197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 유기농업 운동은 1981년 ‘덴마크유기농업조직(the Danish Organization for Organic Farming, LØJ)’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단체는 농민, 소비자, 가공업자들로 구성되어 덴마크에서의 유기농업을 촉진하였다. 이 조직은 독자적인 유기농 경작 및 사육 규정을 지니고 있으며 독립적인 검사체계를 갖추고 있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유기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규칙을 개발하고 그 틀을 형성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단체는 독자적인 유기농업 관련 규칙들을 정하고 있지만, ‘덴마크 유기농업법(유기농업에 관한 최초의 법령)’을 제정하는 데에도 크게 참여하였다. 1987년에 제정된 최초의 유기농업 관련 법령은 ‘유기농업에 관한 법률(Lov om økologisk jordbrugsproduktion)’이었다.

1980년대에는 유기농민들을 교육하기 위한 유기농업학교가 설립되었으며, 이 학교에서는 또한 관행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농민들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당시의 선도적인 유기농업인들은 스스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유기농산품을 가공, 판매하기 위한 회사들을 설립하였다. 여러 회사들의 파산을 겪은 후, 1990년에는 모든 유기농 우유 생산자들이 Dansk Naturmælk라는 하나의 낙농협동조합으로 흡수되었다. 이 협동조합이 운영되다가 폐쇄되고, 지금은 MD Foods라는 회사가 전체 유기농 우유 공급의 77%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소규모 유기농 낙농경영체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았으며, 새로운 소규모 경영체들이 출현해왔다. 이들 소규모 낙농경영체들은 지금 유기농 치즈와 요구르트를 수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유기농 우유는 유기농업 발전의 상징이 되었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유기농 우유는 유기농 시장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오늘날 덴마크에서 판매되고 있는 신선우유의 20%는 유기우유이다.

2. 유기농가의 성장

다음 <표 2>는 유기농업이 이루어지는 농경지 면적과 유기농장 수의 급격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덴마크 유기농업 연표

연도	주요동향
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덴마크 유기농업 조직(LØJ) 창립 ○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의 기본기준에 근거한 유기농업 기준 마련 ○ 덴마크 최대의 유기농채소 소매를 위한 협동조합 창립
1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 농업전문학교, 유기농업학교 설립
1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의 유기농업 지도 활동 시작
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업에 관한 국가기준 제정 ○ 국가에 의한 검사 및 인증 절차 도입 ○ 유기농으로의 전환에 대한 경제적 지원정책 도입
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업에 대한 일반 경제지원정책 확립 ○ 최대 소매점포 체인에서의 유기농산물 소비자 가격 하락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업을 위한 1차 행동계획(Action Plan) 도입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 생산자에 대한 지원 확대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업 센터(Centre for Organic Agriculture) 설립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행동계획 시작

자료: Fibiger Nørfelt(2000), Organic Agriculture in Denmark, <http://www.organic-europe.net>

표 2 품질인증 유기농가 수와 경지면적의 변화

단위: 호, ha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유기농장수	219	401	523	672	675	640
유기재배면적	5,881	9,554	11,581	17,963	18,653	20,090
전환단계 재배면적	2,330	5,565	7,974	10,477	10,446	16,759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유기농장수	677	1,050	1,166	1,617	2,228	3,099
유기재배면적	21,145	40,884	46,171	64,366	99,163	146,685
전환단계 재배면적	16,387	17,032	20,193	37,000	44,102	60,232

자료: Økoguide, 1999

1998년에 99,163ha의 경지면적에서 유기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덴마크 총 농경지면적의 3.6%에 해당된다. 1999년에는 더욱 증가하여 그 비중이 5.5%에 이르고 있다. ‘덴마크 영농조직 연합 자문센터(The Danish Agricultural Advisory Centre)’는 2002년까지는 유기농 채배가 이루어지거나 전환단계에 놓여질 총 면적이 약 300,000ha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1998년 대비 유기농산물 생산량 증가량이 약 80%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3. 검사와 품질인증

덴마크는 유기농업 생산물에 대한 공식적인 법규와 단일한 고유 상징물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국가는 또한 유기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수행한다. 덴마크에서는 농장감독원(Plant Directorate) 직원이 모든 유기농가에 대해 최소 연 1회 방문하도록 되어 있다. 농장감독원은 농림부 산하 조직이다. 농장감독원은 모든 1차 생산자들을 검사하고 생산물에 대한 인증을 한다. 그 사무소는 덴마크 전역에 걸쳐 여러 곳에 위치해 있다. 작물이 아직 경지에서 성장하고 있을 시기에 이루어지는 방문을 통해, 검사자는 모든 것이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사전 동의된 방문과는 별도로, 매년 검사자는 사전 통지없이 전체 유기농장의 25%에 대해 방문한다.

4. 유기농업과 식품에 관한 위원회와 정부의 역할

유기채배 농민들과 덴마크 당국간에는 수년간에 걸친 협조를 통해 여러 방식으로 유기농업을 지원해 온 경험이 있다. 1987년 유기농업생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이 법에 따라 국가는 유기농산물 표시, 농장의 유기채배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자금 조성, 연구, 시장개발 등에 관여해왔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발전단계는 ‘유기농 식품과 유기농업에 관한 위원회 (the Council on Organic Food and Agriculture)’의 설립이었다. 이 위원회는 유기농정책 형성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지렛대로서 기능하며 유기농식품 생산과 관계된 모든 분야에 걸쳐 주도적인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국가, 유기채배 농민 조직, 관행채배 농민조직, 노동조직, 소비자들의 대표로 구성된다.

5. 유기농산물 시장

1993년, 덴마크에서 가장 큰 소매업 집단인 FDB는 유기농 식품을 생산하는 여러 회사들과 함께 가격을 낮추는 동시에 유기농 상품의 마케팅을 촉진시킬 것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협약이 체결된 18개월 이후, 모든 범위의 유기농 상품들이 덴마크 국내 식품 소매점 점포의 95%에서 구매 가능하게 되었다. 그 이후 2-3년 사이에는 유기농 상품 판매에 있어 상당한 증가가 뒤따랐다. 지금(2000년)은 총 식품 유통량의 4%를 유기농산물이 차지하고 있다. 유럽에서 유기농 식품이 지니는 전망은 매우 유망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덴마크의 경우는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판매에 있어 매우 독보적인 경험을 보여준다. 이는 영농 혁신, 정책 목표, 시장지향적인 소매체인, 소비자 행동의 변화 등 다양한 조건들이 성숙된 결과이다.

표 3 덴마크에서 유기농 식품의 시장점유율

단위: %

상품	점유율	상품	점유율	상품	점유율	상품	점유율
우유	22	계란	13	밀가루	11	우육	2
치즈	2	당근	11	귀리	18		
버터	3	감자	7	통밀가루	22		
응고우유	8	양파	4	돈육	1		

자료: Denmark, Organic Service Center

현재까지는 덴마크의 어떤 공식기구도 유기농산물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놓고 있지 않다. 유기농 상품을 판매, 구매하는 회사들은 그들의 시장 자료들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따라서 덴마크의 상황을 상세히 그려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유기농 상품의 수출은 상당히 증가해왔으며, 외국의 유기농 상품 수입도 마찬가지로 증가해왔다. 덴마크는 유럽에서 1인당 유기농 상품 소비량이 가장 큰 나라이다. 그리고 아마도 유럽 최대의 유기농 생산자 단체인 MD Foods가 있는 나라이다. 덴마크 국내 소매 점포에서의 유기농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6년에 2.8%에서 2000년에는 8.2%로 증가했으며, 2001년에는 10.9%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6. 전망

덴마크에서 유기농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유기농 상품 소비는 현대적 생활양식, 소비자 행동의 변화, 그리고 관행적인 영농, 가공, 식품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 계속 증가할 것이다.

소비자, 정치인, 기업, 농민들은 모두 덴마크에서 더욱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 유기농업은 이러한 맥락에서 생생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남겨진 과제는 유기농 상품의 통일성과 품질을 유지하고, 유기농 재배를 더욱 발전시키고, 관행 가공업자들을 유기농 상품의 가공과 판촉에 참여시키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자료: <http://www.organic-europe.net>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지역아카데미)



국제기구 논의동향

WTO 2단계 농업협상 1차 비공식회의 제안 내용

미국 국내보조관련 WTO 협상제안과 배경

미국 EU간 바나나분쟁의 경과

브라질 WTO에 관세인하안 제출

WTO 2단계 농업협상 1차 비공식회의 제안 내용

1. 개요

지난 1년여 동안 진행된 1단계 농업협상은 협상의 목표 및 방법에 대한 각국 제안서를 검토하는 작업이었으며, 앞으로 개최될 2단계 협상에서는 지난 1단계협상에서 개진된 주요 의제별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비공식회의는 제2단계 농업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제1차 비공식회의로서 주요 의제인 관세할당(TRQ)관리방법, 관세(Tariff), 감축대상국내보조(Amber box)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금번회의 협상의제와 관련하여 호주, EU, 스위스, 일본 등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의제에 대해 자국 입장을 제시하는 추가적인 문건을 제출하여 논의를 주도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되도록 원안대로 해석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2. EU의 감축대상국내보조(Amber Box)에 대한 제안

EU는 최종 양허된 총액 기준으로 국내보조를 감축, 시장가격과 연계된 보조에 대한 규율 강화, 생산제한 하 직접지불 정책의 개념유지의 필요성 등의 요지로 추가적인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EU의 현행 농업정책과

지원체제를 고려하면서 미국 등 주요 협상 상대국의 약점을 겨냥한 것으로 향후 국내보조협상에서 주도권 획득과 실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제안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UR 농업협정문은 각 회원국이 합의에 따라 감축해나가야 하는 농업 보조(amber box)와 블루박스나 그린박스 조치의 범주하에서 감축이 면제된 보조금 사이에 중요한 차이를 두고 있다.
- (2) EU는 농업개혁의 요점은 농업협정문 20조의 원칙선상에서 무역왜곡 정책을 점진적으로 철폐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종 양허수준으로부터 총농업국내보조(Total AMS)를 감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 (3) 동시에 EU는 시장가격에 따라 가변적인 지원에 대한 현행규정 강화의 필요성이 있음을 믿는다. 이러한 지불은 속성상 시장가격하락과 불안정성에 대한(counter-cyclical) 지불이며, 시장신호에 관계없이 생산을 증가시킨다. 증가된 생산량은 더 큰 가격하락을 가져오고, 부가적인 무역왜곡적 정부 지출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지불은 특히 해당 국가의 특정품목이 세계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직접적으로 세계시장에서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며, 이에 따라 가장 높은 무역왜곡효과를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시장가격 변동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제공되는 이러한 지불은 특정한 수량제한 없이 수출을 촉진하는 경우에 특히 무역 왜곡적 효과를 갖는다. 이것은 특정한 수량제한 하에서 운영되는 수출 상환(export refund)과는 다른 경우이다. 그러므로, EU는 상당 부분이 수출되는 품목에 대한 이러한 보조는 수출보조금과 같은 동일한 감축약속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제안한다.
- (4) 품목 불특정 국내보조(non-product specific domestic support)에 대한 규율과 관련하여 EU는 현행 규율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현재 무엇이 품목 불특정 국내보조(non-product specific domestic support)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이로 인해 몇 회원국들이 품목 특정적 보조를 품목불특정 보조의 범주로 포함시키도록 유도한다. 이것은 용인될 수 없으며, 특정 품목의 생산량이나 생산형태,

국내가격과 국제 가격, 생산에 사용된 요소와 연계되지 않는 조치만이 품목불특정 보조로 인정되도록 품목 특정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확립하여 개정해야 한다.

- (5) EU는 농업협정문 6(4)항에 명시된 최소허용보조수준(de minimis)의 비율은 상당수준 축소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동시에 개도국에 대해서는 최소 허용보조 수준의 개정을 통해 그들의 관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신축성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 (6) 끝으로, 특히 블루박스과 그린박스의 개념이 계속 유지된다면 EU는 앞으로 보다 큰 보조 감축에 대한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3. 호주의 감축대상보조(Ambor box)에 대한 제안

호주는 비보조 농산물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 그룹의 리더로서 국내보조에 대한 대폭적 감축을 전제로 감축약속의 우회방지를 위한 규율강화, 품목별 감축, 공식에 따른 감축방식 도입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3.1. 개혁을 위한 접근방식

새로운 WTO 농업협상에서는 무역과 생산을 왜곡하는 모든 형태의 국내보조에 대폭적인 감축이 요구되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보조는 철폐되어야 한다.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Blue Box)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무역왜곡의 조치는 감축되어야 한다. 오직 비왜곡적인 형태의 농업지원만이 보조수준이 감소한다는 범주 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호주는 생산 및 무역왜곡적 국내보조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과정에서 감축대상보조(ambor box)에 대한 규율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방식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길 원한다. 다음은 이러한 개혁목표 달성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주요 요소들이다.

- (1) 약속이행을 우회(circumvention)하여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규율이 있어야 할 것이다.

- (2) 모든 농산물에 대한 생산 및 무역왜곡적 지원이 감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공식에 의한 감축(formula approach) 약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 (3) 이러한 공식에 의한 감축방식은 높은 수준의 지원에 대하여 더욱 빠른 감축을 가져올 것이다.
- (4) 최소허용보조 수준(de-minimis)의 계산방법을 포함하여 최소허용보조 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 (5) 이행 초년도에 무역 및 생산왜곡적 지원의 50% 이상 감축(downpayment) 과 같은 이행연도 첫해에 상당 수준의 국내보조에 대한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 (6) 이행 초년도에는 상당 수준의 국내보조 감축(downpayment)과 함께 두 번째 이행년도부터는 매년 동일률로 보조수준을 삭감해 나아간다.

3.2. 개도국 우대조치(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통해 농업 및 농촌개발, 식량안보, 국내 농업 생산 발전을 위한 생계소농 고려 등 정당하고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투자 및 농업 투입재 보조, 마약작물 재배로부터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에 대한 감축면제, 최소허용보조수준(de-minimis)의 유지 등을 포함하여 개도국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공식적용과 약속이행이 필요하다.

3.3. 개혁과정의 지속

농업협정문 20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농업개혁은 현재 진행과정(on going process)에 있다. 회원국들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UR 협상에서 합의된 감축약속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

4. 호주의 관세에 관한 제안

호주는 시장접근부문에서 실질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기준을 협상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호주는 실질적인 시장접근 개선을 위해서 UR 방식보다는 공식에 의한 감축과 TRQ물량 확대 등을 결합한 혼합방식(Cocktail approach)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4.1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식들에 대한 가치평가의 기준

- (1) 모든 농산물에 대한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특히 개도국 관심 품목에 대한 실질적 시장접근 개선
- (2) 관세격차, 고율관세의 문제 해결 능력, 금지관세(prohibitive tariff)를 포함한 관세 상승(가공단계별 세율격차, tariff escalation) 제거 능력
- (3) 단순성과 투명성(관세 감축약속은 시장접근의 실질적 이익 달성을 위해 종가관세(ad valorem)의 형태로 표시되어야 한다.)
- (4) 시장접근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예를 들어 시장접근물량(tariff quota)의 크기,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over-quota tariff)수준 및 시장접근물량 수입에 대한 관세 등 실질적 시장접근제한(real constraints)을 해소하는 능력
- (5) 개도국이 수출하는 품목, 선진국에 의한 고부가가치(value-added) 상품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에 대한 관세의 철폐 혹은 빠르고 대폭적인 감축
- (6) 개도국에 대한 특별우대

4.2. UR 협상 접근방식

시장접근에 대한 UR 접근방식은 세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는 모든 비관세장벽의 관세화이고, 둘째는 단계적인 관세 감축, 셋째는 관세

할당제(TRQ)를 통한 최소시장접근보장이다. UR 협상결과에 따라 회원국들은 6년의 이행기간 동안 단순평균 36%관세 감축(개도국은 10년간 24%)과 최소한 품목별로 15%(개도국은 10%) 관세감축이 요구되었다. 관세는 매년 균등하게 동일률로 감축된다. 위와 같은 것은 유용한 방식이었으나 앞서 언급된 여러 기준들을 충족시키는데는 충분치 않았다.

관세할당제(tariff quota)는 관세화로부터 높은 관세가 발생하는 경우에 시장접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관세화(tariffication)와 최소 시장접근약속(minimum access commitment)은 기대된 시장접근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

UR접근은 평균적인 감축 기준으로 인해 회원국들에게 관세 감축에 대한 신축성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각국은 자국의 민감한 품목(이미 대부분 높은 관세가 유지되던 품목)에 대해 최소 감축률(15센트)만을 적용할 수 있었다. 반면에 민감성이 덜한 품목에 대해서는 큰 감축률을 적용케 함으로써 평균적인 감축약속을 이행하게 했다.

4.3. '혼합' 방식

위에 언급된 기준을 충족시키고 실질적인 시장접근의 개선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결합한 또 다른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 (1) 정해진 일정률(X%)의 관세인하방식(flat cut)을 통한 관세감축
- (2) 일정을 관세인하방식(flat cut)보다 높은 관세는 더 큰 감축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의해 고관세(tariff peak), 관세 상승(tariff escalation), 금지적 관세(prohibitive tariff)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화공식의 응용
- (3) 관세 할당량의 확대
- (4) 개도국우대 차원에서 낮은 감축률과 긴 이행기간을 부여

4.4. 개혁과정의 지속

농업협정문 2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농업개혁과정은 진행 중에(on

going process)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UR 시장개방 부문 약속이행을 마친 회원국들은 UR개혁과정이 동일한 속도로 계속되고 있을때 요구되는 수준의 관세감축과 관세할당량 확대를 포함하는 약속을 우선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UR에서 합의된 관세 감축과 관세할당량 확대를 이행하고 있는 회원국들은 관세감축과 관세할당량 확대에 대한 자발적 이행으로부터 면제된다.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원국들은 관세인상이나 그들 시장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조치의 시행을 자제해야 한다.

5. EU의 관세할당제(TRQ) 관리에 대한 제안

EU는 현행 농업협정문에 TRQ관리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범이 존재하지 않아 시장접근기회의 실제 수입이행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TRQ 할당방식에 대한 규율 강화를 요지로 제안하였다.

5.1. 제안 배경

- (1) EU는 UR에서 합의된 관세할당제(TRQ)가 시장접근의 증가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믿으나 사무국 배경문서에서 보인 바와 같이, 1996-98년 동안, 62%의 수입 이행률을 보였다는 데 주목한다.
- (2) 농업위원회(CoA)의 토론과정과 분석 및 정보교환작업(AIE) 과정에서 보인 바와 같이 수입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TRQ관리방식에는 해결되어야 할 많은 단점이 있다.
- (3) 더욱이 현재 다양한 TRQ 관리체제가 WTO규정과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접근물량 배분 원칙에 대한 명확화가 요구된다.
- (4) 수입관리를 위한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특히 개도국에게 중요한 것이다.

5.2. TRQ 할당 방법

- (1) 수급의 변화, 품질과 국내외 가격변동 등과 함께, 시장접근물량의 배분 방식은 시장접근과 수입이행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2) 그러나, AoA(농업협정)이나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the 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duction) 모두 관세할당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GATT 13조는 수량제한에 대한 무차별원칙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입쿼터가 국별로 할당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할당 방식에 대한 규정은 존재치 않는다. 13조는 주로 일반적인 지침을 규정한 것으로서 사실상 회원국들은 다양한 TRQ 할당방식을 사용해 왔다. 따라서 수입할당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 (3) 모든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이상적인 수입쿼터 할당방식은 없다. 수입할당방식의 선택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사이의 차이인 수입차액(quota rent)문제이다. 수입차액이 클수록 수입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다. 수입할당방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은 시장조건, 품목 특성, 계절적 흐름(seasonal flow), 공급국가의 수, 수입국내에서의 일반적인 배분방식과 관리능력 등이다.
- (4) EU는 품목특성과 시장조건이 개별적으로 혹은 결합적 측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아래 제시된 수입할당방식을 협상에서 고려해야 함을 제안한다.

① 선착순(FCFS : First-come First-served)

수입업자들은 할당이 이행될 때까지 낮은 in-quota 관세에서 수입이 자유롭다. 특정 수입업자에게 수입할당의 배분이 우선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수입업자들은 관세할당이 이행될 때까지 in-quota 관세율로 언제든지 수입이 가능하며, 할당물량이 초과되는 시점부터 높은 관세가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FCFS 관세할당방식은 관세청에 수입이 신고되는 순서에 따라 수입이 관리되어야 한다. 이 때 특별한 관리수단은 없으며, 관세할당량은

설정된 상한치에 이를때까지 수입업자에게 계속 허용된다. 그러나 수출국에 대한 위장된 무역제한이 되지 않는 한 연간 쿼터를 시기별로 나누어 배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② 수입허가(simultaneous examination)

수입할당량은 수입신청시 요청한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된다. 만약 요청된 수입물량이 설정된 TRQ보다 적으면 모든 신청물량에 대해 수입권이 발행되고, 만약 수요물량이 TRQ를 초과하면 모든 요청된 수입물량에 감축계수를 적용한다.

③ 과거 실적(Historical importers)

수입업자의 수입지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품목의 과거 수입실적에 따라 할당되고 허가권이 발행된다. TRQ의 일부는 전통적 수입업자를 위해 별도로 할당되고 나머지는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여타 수입업자들에게 할당된다. 전통적 수입업자들은 TRQ품목에 대해 기준기간(reference period) 동안 실제 수입실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만약 수입업자들에 의해 요청된 수입물량이 TRQ를 초과하면 비례적으로 감축하여 수입물량을 배정한다.

④ 공매(Auctioning)

공매는 경제학 문헌에서 수입관리 방식 중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투명한 할당방법이라 일컬어진다. 수입권은 경쟁적 입찰제를 기초로 할당된다. 수입업자들은 수입권 획득을 위해 지불하고자하는 단위당 가격과 희망하는 수입할당량을 제시한 봉인된 입찰권을 제출한다. 관계 당국은 설정된 TRQ물량 혹은 그 이상으로 입찰물량이 결정되도록 최저입찰가격(cut-off price)을 결정한다. 여기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입찰가격을 최저입찰가격 혹은 그 이상으로 제시한 응찰자가 요구한 수입허가권을 받고 자신이 제시한 입찰가격을 지불하는 것이다. 혹은 제시한 입찰가격이 최저입찰가격수준 혹은 그 이상인 모든 응찰자가 수입허가권을 받고 모든 지원자가 동일한 최저입찰가격(cut-off price)을 지불한다.

5.3. 수입부가조건(Import requirement)

- (1) 수입권 할당방법 뿐만 아니라 특정한 행정적 관행은 수입 이행률에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시장접근은 제한적인 수입부가조건에 의해 방해받을 수 있다.
- (2) 양허의 형태로 약속된(concession) TRQ 물량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수입관리의 투명성, 신뢰성, 안전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규정과 규율설정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수입부가조건과 관련하여, EU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① 지원자의 정의/적격성의 기준

회원국들은 수입업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수입업자가 대외관계나 소유권 관계에 따라 여타 수입업자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수입업자에게 요구되는 참여조건이 국내 수입업자에 비하여 다른 회원국 공급업자들에게 불리해서는 안되며, 회원국들의 공급업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② 할당되지 않은 물량

수입업자에게 할당된 물량은 TRQ에 의해 관리되는 품목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물량이어야 한다. 만약 수입업자에 할당된 물량이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물량이 아니라면 신청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하며, 남은 양은 재배정되어야 한다.

만약 설정된 TRQ물량이 국별(country-specific base)로 할당된다면, 여타국에 재할당의 가능성이 미리 제시되어야 한다. 할당되지 않거나 소진되지 않은 TRQ물량은 쿼터 이행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적절하게 재배정되어야 한다.

③ 국내산 구매 조건

이 조건에서 수입업자가 해당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해당품목의 일정량을 구입해야 한다. 이 규정은 불필요하게 수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

④ 수입허가권의 유효기간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the Agreement on import Licensing)의 3조 5항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수입허가의 유효기간은 합리적인 기간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수입을 저해할 만큼 짧아서는 안된다. 수입허가 기간은 예견되지 않은 단기간의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먼 거리로부터의 수입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⑤ 수입허가의 효과적 이용

수입이행을 촉진하고 TRQ물량의 시장접근기회를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발행된 수입허가가 실제로 가능한 최대한도까지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러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수입업자들은 실제 수입증명에 따라 발부된 적절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공표/투명성

TRQ물량할당을 공표할 때 선택된 수입할당방법, 수입시 요구되는 조건, 서류제출 기한과 그것들을 제출할 관계 행정당국의 목록 등을 충분한 시기를 두고 제공해야 한다.

6. 일본의 관세쿼터(Tariff Quota)에 제안

일본은 다양한 TRQ관리 방식마다 각각의 배경과 장단점이 있으며, 무역왜곡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한 관리방식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선택되어야 하고 TRQ설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지나친 수입국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 (1) 일본은 협상제안서를 통해 현행 최소시장 및 시장접근(minimum and current access)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회원국들이 주목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시장접근기회(access opportunities) 측면에서 농산물 수출입국간 적용되는 권리와 의무에 있어 불균형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수입국은 관세이외의 국경수단(border measures)을 금지하는 원칙에 따라 시장접근기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된 반면에 수출국은 수출제한을 부과할 수 있으며 수출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수출물량에 대해 수출세가 면제되는 최소 수출기회(minimum exporting opportunity) 제공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이러한 불균형은 앞으로 협상에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 둘째, 무역구조 차이나 시장접근기회가 국제공급과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등과 관계없이 다양한 품목에 대해 획일적인 시장접근기회의 설정은 비합리적이며 농산물을 수입하는 개도국들에게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접근기회의 수준은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발휘 보장과 같은 요소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주어진 후에 결정되어야 한다.
- (2) 부가적으로 회원국들에게 일정한 시장접근 기회 제공을 요구하는 현행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농업협정문 4조 2항과 관련하여 관세화 유예를 위한 특별취급 품목의 경우에 특별취급의 적용이 중지된 후에도 추가적인 접근기회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관세화 유예 보상의 대가 차원에서 너무 과도한 부담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규정은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UR협정에서 시장접근기회의 수준은 국내 소비량의 일정률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각국의 농산물 소비 패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현행 기준기간(1986-88)은 이용가능한 자료가 있는 최근 연도로 대체되어야 한다.
- (3) 일본은 위에서 언급된 이들 태생적 문제점들이 토의되어야하고 향후 시장접근기회(future access opportunities) 수준 설정을 논의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7. 호주의 TRQ관리에 대한 제안

호주는 TRQ관리 방법의 규율개선을 위한 원칙으로 투명성, 예측가능성, 실행가능성 등을 제시하고, TRQ 물량설정과 관리방식은 수출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7.1 TRQ관리 규칙의 기준

호주는 TRQ관리방식에 대한 규율제정을 위해 지침이 될 수 있는 원칙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TRQ관리는 실행가능하고, 예측가능하고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상업적 의사결정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상업적 고려(commercial consideration)에 근거하여야 한다. 셋째, 최혜국대우(MFN)에 입각한 관세할당은 모든 수출공급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시장접근기회의 실현을 촉진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TRQ 관리에 추가적으로 부가된 조건은 시장접근기회를 제한하거나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7.2. TRQ 관리에 관한 UR경험

UR농업협정의 이행경험은 지금까지 사용된 모든 TRQ관리방법들이 위의 제시된 원칙들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관세할당은 시장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UR 협상에서 합의된 TRQ제도는 그 때 현행 접근 조건이 손상되지 않고 새로운 접근기회에 대한 체계가 보장된다는 의미이다. TRQ관리는 관세할당량 또는 시장접근물량에 부과되는 저율관세를 훨씬 초과하는 관세에 대한 이용을 통해 이중적 보호장치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TRQ관리는 관세할당제에 의해 제공된 시장 접근물량에 대한 무역이 실제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TRQ관리는 수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TRQ

관리 경험은 이러한 사항이 항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농업협정문의 하나의 특징은 TRQ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GATT의 제1조, 2조, 3조, 10조, 11조와 12조, 그리고 수입허가에 관한 협정(The Agreement on Import Licensing)을 포함하는 다른 WTO규정들이 TRQ관리의 다양한 측면에 적용된다.

7.3. 개혁방안

이번 협상기간 동안, 호주는 TRQ를 관리하는 적절한 방법과 어떻게 TRQ 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하는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길 원한다. WTO회원국들이 고려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공급자들 사이에 최혜국대우(MFN)에 입각한 관세할당의 배분이 차별 없이 이루어지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적절한 시기에 재수출기회가 가능하도록 사용되지 않은 쿼터 재배분에 대한 규정이 설정되어야 한다. 셋째, 시장접근기회를 제약하는 부가조건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율을 만들고 개발도상국 수출품에 대한 개선된 시장접근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설정된 모든 TRQ물량에 대한 시장접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TRQ관리방식에 세번별로 구체적인 TRQ물량의 분배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어떤 관세할당관리방식이 WTO규정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입이행율이 저조한 경우와 관세할당관리의 문제를 검토하고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카니즘을 개발해야 한다.

8. 스위스의 TRQ 관리에 대한 제안: 공매의 경우

스위스는 쿼터공매제는 자국의 사용경험에 비추어 볼 때, 투명하고 수입이행률이 높은 제도로서, WTO 규범에 합치하는 제도임을 강조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8.1. 제안개요

기본적으로 관세할당제(TRQ)는 수출국에게 계속된 시장접근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 UR협정아래 도입되었다. 비록 관세할당제가 몇 개 회원국에 의해서는 GATT/WTO체제에 맞지 않는 제도로 여겨지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단기적으로 폐지될 것 같지도 않으며, 이 제도의 폐지가 수출국이나 수입국 모두에게 좋은 방안은 아닐 듯하다. 농업협정은 TRQ 물량배분과 관리에 대한 특별한 방식이나 구체적인 규칙을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GATT 1994 혹은 수입 허가절차를 위한 협정 등 다른 WTO협정은 TRQ관리에 대한 규칙을 원용할 수 있는 많은 근거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다양한 TRQ배분 방식을 원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선착순(First-come, First-served), 과거 수입지분에 근거한 일정공식에 따라 할당되는 수입 허가(Import licenses), 국별쿼터(county quotas), 수입권의 공매(Auctioning)등이 있다. 대부분의 무역 파트너들은 관세할당제(TRQ)관리에 있어 보다 확실한 규율과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스위스가 볼 때, 모든 TRQ할당방식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은 현존하는 WTO 규정과 규율 측면에서 투명하고 비차별적 방식을 정의하는 것이다.

스위스 제안서의 목적은 TRQ할당의 가장 효율적이고 예측가능한 방식의 하나로 공매제를 소개하는 것이다. 또한 스위스 제안은 공매제와 기타 TRQ 관리방식들에 적용될 수 있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규칙과 절차들의 구체화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이러한 규칙과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모든 회원국들에게 공매제는 효과적 TRQ관리방식으로 이용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8.2. 공매

일반적으로 공매제는 GATT체제에서 권고되는 비차별성,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배분 방법으로 여겨진다. 공매는 관세할당제에서 발생하는 무역왜곡효과를 최소화한다.(Josling, Tangermann

and Warley, 1996, Haniotis, 1998, in OECD(2001) : 농업에 대한 UR협정 ; OECD국가에서의 이행평가). 그러나 높은 수입이행율을 포함하는 공매의 모든 효과가 실현되기 위해서 공매는 경쟁적인 시장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매는 모든 수출 공급자들을 동등하게 취급한다. 이것은 특히 개도국과 원거리 국가에게 특히 중요한 사항이다. 공매는 수입시점에 관해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계절적 특징을 갖는 상품을 수출하는 원거리 국가들은 이러한 할당방법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마약 북반부에 있는 WTO회원국이 계절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선착순으로 상대적으로 소규모 쿼터를 7월 1일에 할당한다면 남반구에 있는 수출공급국가는 명백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공매는 모든 이해관계 회사에게 관세할당(TRQ)물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종종 국별쿼터(country quota)나 과거 수입지분(historical import share)에 근거한 수입허가(import license)의 경우에는 모든 이해관계 회사에게 시장접근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공매제는 새로운 참여자(newcomer)를 차별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때문에 공매가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선호되는 할당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관세할당제(TRQ)는 일반적으로 수입차액(quota rent)을 창출한다. 경쟁적 시장조건하에서 수출업자들은 이러한 수입차액(quota rent)을 가질 수 없다. 앞서 언급한 선착순, 과거 수입지분에 근거한 수입 허가, 국별쿼터 등의 경우에 수입차액은 일반적으로 수입하는 회사들의 소유가 된다. 수입차액을 수취한 회사들이 소비자와 수입차익을 나누어 갖는 지는 또 다른 의문이다. 그러나 공매에 의해 투명하게 발생하는 수입차액은 정부에 이전된다. 이 때 수입차액이 단순히 수입업자 대신 정부로 이전되기 때문에 수입가격과 국내가격 수준이 증가할 것 같지 않다.

공매가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운영된다면 공매에 의한 TRQ배분방식은 수입이행률(quota fill)을 높일 것이고, 수입의 감소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

이다. 이 경우에 몇 가지 절차적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모든 수입업자들이 총 TRQ할당물량에 대한 수입허가(import licenses)를 받기 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수입권을 파는 기관인 정부는 특정지원자에 대해 특별한 선호를 해서도 안되고 최소입찰가격을 설정해서도 안된다.

공매는 경쟁정책의 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수입권에 대한 제한없는 접근기회는 독점시장구조를 해체할 수 있고, 관세할당물량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른 할당방식은 공매에 비해 비효율적이다.

마지막으로, 공매방식은 동일한 시장접근의 수준을 보장하는 단일 관세율 수준을 적절히 표시함으로써 단일 관세체제(single tariff system)를 향한 교량 역할을 하는 최적의 수단이 될 수 있다.

8.3. 결론

스위스는 TRQ물량의 공매가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모두를 위한 경쟁적 시장조건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특히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곳에서 잘 적용된다. 주어진 특정 조건에서 공매가 이루어진다면 공매제는 비차별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최대한도로 높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쿼터배분방식이다. 공매는 또한 비효율적 할당과 높은 소비자가격을 유도하는 수입업자들 간의 담합에 의한 반경쟁적 행위를 없앨 수 있다. 스위스는 관세할당제(TRQ)관리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이어야 하고 경쟁적 시장조건하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명백히 정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에서 가장 높은 수입이행률을 보장할 수 있으며 무역제한적인 운영을 막을 수 있다. 스위스는 앞서 제시된 원칙에 따라 TRQ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율을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법칙과 원칙은 공매를 포함한 모든 관세할당제(TRQ)할당방식에 지침이 될 것이다. 공매는 관세

나 농업협정문 4조 2항에서 언급하는 수입제한조치가 아니다. 그러므로 스위스는 다른 회원국들이 TRQ관리와 관련하여 농업협정문이나 다른 WTO 협정에서 갖추어야 할 규칙설정에 기여하길 바란다. 만약 원칙과 규정에 따라 TRQ관리를 원하는 회원국에게 법적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2단계 협상과정 중에 WTO 사무국에게 농업협정문 4조 2항의 개정이나 해석에 대한 명확화를 포함하여 TRQ관리에 적용될 수 있는 현행 조항에 대한 법적분석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래정 konrae@hanmail.net 국제농업연구실)

미국 국내보조관련 WTO 협상제안과 배경

미국은 지난해 6월 새로운 농업협상의 일환으로 개최된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국내보조의 유형을 단순화시키고 회원국 사이의 보조수준 차이를 줄이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지로 국내보조분야에 대한 협상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미국이 국내보조와 관련하여 제안한 주요 내용과 그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보조를 감축면제(허용대상)보조와 감축비면제(감축대상)보조로 단순화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감축면제되고 있는 생산제한하 직접지불(Blue Box)정책을 감축대상으로 편입시키고자하는 의도이다. 생산제한하 직접지불정책의 감축면제는 UR 협상 마지막 단계에 미국과 EU간의 블레어하우스 합의(Blair House Accord)에서 도출된 것으로 WTO 농업협정 제6조 5항에 따라 감축대상보조임에도 불구하고 감축이행에서 면제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1996년 농업법을 개정하면서 주요곡물의 생산조정과 함께 시행되어 온 부족불제도를 철폐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Blue Box를 감축면제로 인정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지난 UR 협상당시와 마찬가지로 향후 WTO 농업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주요 협상대상국인 EU의 약점을 이용하여 협상력을 증진시키려는 전략도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 하면 EU는 전통적으로 생산통제하 직접지불정책을 공동농업정책(CAP)의 주요 정책수단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으며, 1996년도 기준으로 대략 200억불에 달하는 보조를 이 정책하에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 미국 주장대로 감축대상으로 편입된다면 공동

농업정책(CAP)운영에 큰 어려움을 받을 것이다.

둘째, 각국의 농업총생산액에서 AMS가 차지하는 비중이 똑같이 되게 감축하자는 것이다. 총 농업 생산액을 바탕으로 AMS 양허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은 각국의 농업 규모와 AMS 수준을 연계시키자는 것으로 이 같은 보조 감축방식은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 보조규모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명분상 국가간 보조수준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차원이다. 미국이 이것을 제안한 주요 이유는 대내적으로 최근 국내보조의 증가추세를 감안한 것이고, 대외적으로 최대 농업보조국이자 주요 협상대상국인 EU와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현행 체제가 지속된다면 EU는 UR 이행기간이 끝난 후에도 800억 달러에 달하는 감축대상 보조를 지불할 수 있는 반면에 미국은 200억 달러 이내에서만 보조가 가능한 형편이다. 예를들어 미국, EC, 일본, 한국 가운데 농업 생산액 대비 양허된 AMS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1997년 기준으로 일본(45.5%)과 EU(34%)이며, 미국(10.5%)과 한국(6.7%)은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농업 생산액 대비 현행 AMS의 비율은 일본(32.3%), EU(23.2%), 한국(6.4%)이고, 그리고 미국(3.2%)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무역왜곡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개발에 대한 지원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대표적으로 감축에서 면제해야 할 정책으로 예시된 것은 농가소득안전망과 위험관리, 환경 및 자연자원 보호, 농촌개발, 신기술 및 구조조정 정책 등이다.

미국이 협상제안서에서 농업의 NTC기능과 개도국, 최빈개도국에게 절실한 발전목표를 고려하여 특정한 규율하에서 농가소득안전망과 위험관리, 환경 및 자연자원 보호, 농촌개발, 신기술, 구조조정 관련 정책의 감축 의무 면제 제안은 사실상 미국이 1996년 농업법 제정 이후 최근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 유형을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 미국은 1996년 농업법 시행과 함께 초래된 가격하락, 과잉생산, 재고누증, 자연재해빈발 등으

표 1 주요국 농업 생산액대비 AMS비율

	항 목	1995	1996	1997	1998	1999
미국 (백만\$)	AMS 양허 수준(A)	23,083	22,287	21,491	20,695	19,899
	현행 총 AMS(B)	6,214	5,898	6,238	-	-
	농업생산액(C)	190,110	205,701	203,884	-	-
	A/C(%)	12.1	10.8	10.5	-	-
	B/C(%)	3.3	2.9	3.1	-	-
EC (10억ECU)	AMS 양허 수준(A)	79	76	74	72	19
	현행 총 AMS(B)	50	51	-	-	-
	농업생산액(C)	207.4	219.7	217.8	-	-
	A/C(%)	37.9	34.8	34.0	-	-
	B/C(%)	24.1	23.2	-	-	-
일본 (10억엔)	AMS 양허 수준(A)	4,801	4,635	4,470	4,304	4,138
	현행 총 AMS(B)	3,508	3,330	3,171	-	-
	농업생산액(C)	10,434	10,249	9,832	-	-
	A/C(%)	46.0	45.2	45.5	-	-
	B/C(%)	33.6	32.5	32.3	-	-
한국 (10억원)	AMS 양허 수준(A)	2,183	2,106	2,029	1,952	1,875
	현행 총 AMS(B)	2,075	1,967	1,940	1,563	1,552
	농업생산액(C)	26,736	29,052	30,241	30,748	32,843
	A/C(%)	8.2	7.2	6.7	6.3	5.7
	B/C(%)	7.8	6.8	6.4	5.1	4.7

자료: WTO, OECD, 농림부

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고 적절한 농가보호와 농촌경제유지를 위해 소득보조, 환경보전지원, 농업보험, 농업/농촌공동체 지원 및 추가적 긴급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따라서 향후 미국이 추진해온 이러한 정책들을 감축대상 면제조치로 인정받음으로써 새로운 협상에서 국내보조를 크게 증가시켜왔다는 비판과 협상추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여겨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농업보조금은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비록 미국이 WTO에 제출한 협상제안서에 무역 및 생산왜곡적 국내보조의 감축과 허용대상보조의 규율 재정립에 대한 기본 입장이 표명되고는 있으나 캐나다의 국내보조 상한설정이나 케언즈 그룹의 품목별 AMS감축 등 과격한 국내보조 개혁 주장에 비해서는 약화된 수준으로 이는 새로운 WTO 농업협상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선 UR 협상 이후 미국의 직접지불, 소득안정 지원, 재해보상 등 허용대상 농업보조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종종 감축대상 국내보조적 성격을 갖는 정부지원도 크게 증가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WTO 농업협상에서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취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니엘 섬너(Daniel Sumner)등 미국내 일부 학자그룹에서 최근의 미국 국내보조 증가 추세와 UR 협정 이행 평가를 기초로 국내보조 부문보다는 국제적 무역자유화와 미국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시장개방분야와 수출보조 관련 협상에 더 큰 관심과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UR 협상에서 국내보조, 시장개방, 수출보조로 나누어 협상을 한 결과 국내보조 감축에 관한 협상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했으나 국내보조 이행결과가 미국 이익에 미친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200억 달러에 달하는 긴급직접지불이나 작물보험료의 정부보조율 증가 등 국내지지 확대는 본격적인 WTO 농업협상을 앞둔 현 시점에서 미국내에서도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즉 미국 농업정책의 변화는 당초 미국이 주장하던 현행 허용대상정책의 기준강화에 반해 현행 허용대상정책의 유지 혹은 유연화를 미국 스스로 제안하는 것이

라는 의견이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WTO 농업협상에서 미국은 국내보조금 감축에 관한 협상은 심도 있게 취급하지 않고 시장개방 분야와 수출보조금 감축 분야의 협상에 중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입장변화에 맞추어 시장개방 분야의 협상에 중점을 두어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정빈 jeongbi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미국 EU간 바나나분쟁의 경과

1. 2006년에는 관세화로 일원화

지난 4월 11일 미국과 EU는 EU의 바나나수입제도의 개혁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 EU의 바나나 수입을 둘러싼 분쟁은 1993년 EU가 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제국(ACP제국)에 유리한 관세할당제를 도입한 것을 발단으로 시작하였다.

중남미의 바나나 수출국 및 세계 2대 바나나 수출업자인 치키타社(오하이오주), 돌社(캘리포니아주)를 옹호하는 미국은 WTO에 제소, 98년에 EU의 수입제도를 WTO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로 인해 EU는 수입제도를 개선하였지만 99년에 다시 WTO에서 불충분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99년 미국은 EU에게 1억 9,100만 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합의에서는 2001년 7월부터 중남미 제국에 바나나 수입 라이선스를 발행할 것, 미국은 보복관세를 정지할 것, 2006년 1월에 관세만의 수입제도로 이행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EU에서는 구주의회 및 각료이사회 의 승인을 거쳐 신제도의 도입이 가능하게 된다.

미국의 세릭 USTR(미통상대표부) 대표, 에반스 상무부 장관, EU의 라미 무역담당위원, 피슈라 농업담당위원은 공동성명에서 “과거의 마찰을 해소하고, 바나나무역을 보다 좋은 방향으로 전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2. 돌사는 USTR을 격렬하게 비판

이 합의에 근거한 EU의 새로운 라이선스는 1994/96년의 수입실적에 기초하여 발행하게 된다. 치키타사는 돌사보다 빨리 EU시장으로 진출, 93년 이전에는 EU에서 시장점유율은 40%에 달하였다. 따라서 1994/96년의 수입 실적은 치키타사가 돌사를 상회하였다.

자유롭고 경쟁에 보다 적합한 선착순방식(First-come First-serve)을 주장하고 있던 돌사는 실적방식은 라이벌인 치키타사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EU수입제도의 개혁을 저해한다고 하여 USTR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 돌사가 생산·판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에콰도르도 이 합의를 비판, 수정하지 않으면 WTO에 협의를 신청한다고 한다.

한편, 너무 복잡하여 조작하기 쉽다고 하여 선착순방식에 반대하고 있던 치키타사는 이번 합의를 평가하여, USTR과 중남미제국의 관계자에 감사한다는 뜻의 기사 발표를 하였다. 단, 이번 합의가 수입제한으로 치키타사가 지금까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치키타사에 유리한 합의에 이른 배경으로서 동사의 로비활동을 들고있는 보도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지는 치키타사와 주식의 36%를 가지고 있는 아메리칸 파이낸셜 그룹이 과거 8년 동안에 민주·공화당에 170만 달러의 현금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돌사의 현금은 16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하며, 게다가 치키타사는 클린턴과 부시 양정권, 상원여당을 비롯하여 하원의장 등 유력자에게 유효한 로비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향후 EU의 승인과정, 돌사와 에콰도르의 반격이 주목된다.

자료: JETRO, Food&Agriculture, no.2335(2001.4.30)에서
(김상현 ksh3615@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브라질 WTO에 관세인하안 제출

지난 5월 20일 남미공동시장(MERCOSUR) 가맹 4개국과 준가맹국인 칠레와 볼리비아는 UR 종료에 따른 WTO 신라운드 합의까지 과도적 조치로 2004년부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와 수입할당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안을 WTO에 제출하였다.

금년 11월(9-13일)에 카타르에서 개최 예정인 WTO 각료회의에서 UR을 대체하는 신라운드 협상이 결정되어, 2002년 1월부터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라운드의 합의에 기초한 단계적 관세 인하가 87년에 종료된 것을 계기로 1986년 9월에 남미 우루과이의 판타 델 에스테에서 열린 GATT 각료회의에서 도쿄라운드를 대체하는 다자간무역협상(UR)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UR 농업협상이 최종합의에 달한 것은 94년 4월 말라케슈 각료회의이며, 합의사항이 실시된 것은 1년 후인 95년 4월부터이다.

UR 농업협정은 선진국의 경우 2000년 말까지가 기한이지만, 케언즈 그룹 등은 농산물에 대한 관세·비관세장벽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카타르의 WTO 각료회의에서 차기 라운드의 출범이 결정되었다고 해도 이 라운드가 최종 합의되기까지는 5~6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UR 농업협정의 실시 종료에서 신라운드 합의가 실시되기까지 선진국은 국내농업에 대한, ①가격지지 및 보조금정책, ②관세 인하와 수입 할당, ③수출보조금 등 보호수준을 더욱 감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농업을 주요산업으로 하는 개도국의 농산물 수출은 곤란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을 주요산업으로 하는 MERCOSUR 가맹국(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과 준가맹국(칠레, 볼리비아)은 차기 라운드가 합의되기까지 과도적 조치로서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와 수입할당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안을 5월 20일에 WTO에 제출하였다. 이 안에 의하면 2004년부터, ①관세율을 선진국은 연 6%, 개도국은 연 2.4%의 비율로 감축, ②수입할당량을 기준기간(1986~88년)의 연평균 소비량에 근거하여 선진국은 33%, 개도국은 22%로 확대한다고 한다.

5월 20일 브라질대표는 제네바의 WTO에서 브라질의 수입할당품목은 배와 사과 등 2품목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2품목에 대해 수입할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농산물에 대한 수입할당 품목수는 UR 농업협정에 의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이 예상과는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WTO 가맹국 전체의 수입할당 품목수는 1,379 품목이며, 그 가운데 노르웨이의 할당 품목수는 최고 232 품목이며, 다음으로 폴란드가 109 품목, EU가 85품목, 미국이 54 품목, 캐나다가 21 품목 등으로 선진국의 농업보호정책을 비판하였다.

또, 남미남부 6개국은 관세 인하와 수입할당량 확대를 케언즈 그룹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그룹에는 선진국인 캐나다가 포함되어 있고, 게다가 농산물에 대한 관세인하에 일절 응하지 않는 핀란드가 포함되어 있어 그룹 전체의 의견일치를 얻을 수 없었다. 때문에 브라질은 개도국만으로 구성하는 새로운 그룹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자료: <http://www.maff.go.jp/soshiki/keizai/kikaku...>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농산물 무역 정보

중국 2001년 1~4월 대두수입 증가

칠레 2000/01년도 과일 수출 8% 증가

중국 2001년 1~4월 대두수입 증가

2001년 1~4월에 대량의 대두를 수입한 중국은 향후도 대두 수입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일부 기업은 현재 대두의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해서 연초에 입은 손해를 회복하고 있는 한편, 착유업자는 수요 증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의 보고에 의하면 내년 수입이 감소할 경우 착유업자의 일부가 폐업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년 1~4월간 중국의 대두수입량은 78%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량은 향후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의 추정에 따르면 현재 중국 기업은 5~7월 선적분으로 월간 150만톤의 대두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2001년 중국의 대두 추정수입량은 당초 견적의 1,020만톤에서 1,100만톤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또, 2001년 1~4월에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전년동기의 196만톤에서 318만톤으로 증가하고 있다.

업계는 중국의 일부 무역기업이 연초에 입은 손해를 회복하는데 힘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9월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작년 말에는 일부 중국기업이 2001년 1~2월의 수입분으로서 대량의 대두를 예약하였다. 그러나 연초에 대두가격이 급락하였기 때문에 수입기업은 손해를 입고 있다.

수입업자는 현재 미국과 중국에서 대두의 가격차를 보이는 한 이익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단지, 미국의 가격은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 가격차는 축소되어 수입업자의 차익금은 감소할 것이다.

이 결과, 중국에서는 9월부터 연말까지 대두 발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금년 1~4월에 중국이 발주한 대두 가운데 98.7%는 미국산이 차지하고 있지만 향후 중국은 대두가 풍작인 남미로 발주처를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또, 5~7월 선적분 대두의 수입가격은 1톤당 181 US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기간에 미국의 대두가격은 1톤당 197 US달러, 남미의 대두가격은 191 US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대두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는 요인으로 대두유 및 식육의 소비량증가를 들 수 있으며, 게다가 식육의 소비증가는 대두박의 수요증가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의하면 과거 수년간 중국의 1인당 식용유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1994~1999년간 중국 국내의 착유업자에 의한 대두의 수요량은 연간 200만톤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의 수요량은 1,6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 일부 전문가는 대두 수입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중국의 소규모 착유업자의 일부가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資料: <http://www.maff.go.jp/soshiki/keizai/kikaku/2001/20010601china>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칠레 2000/01년도 과일 수출 8% 증가

2000/01년도 칠레의 과일수출량은 8%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1999/00년도 수출량이 대폭으로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이 성장률은 그다지 놀라운 것은 아니지만 국제가격 상승 및 환율 인상 등으로 칠레 생산자의 수익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수출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다른 한편에는 미국의 포도생산자가 칠레에 대한 덤핑제소를 제기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다른 생산자에게도 같은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2001년 4월 22일 현재, 칠레의 2000/01년도 과일수출량은 1999/00년도 동기보다 8% 증가하였다. 이 성장률의 평가에는 1999/00년도 수출량이 전년대비 약 10% 감소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칠레에서 가장 큰 수출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과일은 아보카드이며, 77%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자두가 55% 증가, 플럼코트(자두와 살구의 교배종)가 47% 증가, 벡타린이 20% 증가, 복숭아 15% 증가, 서양배가 14% 증가, 적사과 및 청사과가 11% 증가하고 있다.

한편,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는 과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품목은 포도이다. 4월 22일 현재, 칠레의 포도수출량은 전년대비 7% 감소한 것에 불과하지만, 포도는 칠레의 주요 수출품목이기 때문에 과일수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기타 주요 수출용 과일인 키위 수출량이 12%라는 대폭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

또, 2001년 3월 31일 현재, 세계 지역별 칠레산 과일의 수출상황을 살펴

보면, 수출량은 중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플러스 성장이다. 시장별로는 칠레산 과일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및 캐나다로의 수출량은 7% 성장하였으며,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량은 일본 및 홍콩을 중심으로 26% 성장하였다. 또, 유럽으로의 수출량의 평균성장률은 19%이며,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로의 수출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영국으로는 약간 감소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로의 수출량은 모든 나라에서 증가한 결과, 전체 성장률은 10%에 달하며, 그 중에서도 대멕시코 수출량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장률은 1999/00년도의 수출부진에서 회복이라는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금년은 칠레의 수출업자 및 생산자에게 유리한 요인이 2가지 존재한다. 첫째 요인은 과일 가격 상승으로 현시점에서는 아직 최종적인 수출이익이 나오지 않지만 금년 수출가격은 전체적으로 대폭 상승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 요인은 환율 상승이다. 최근 수년간 페소가격은 상승하였지만 작년은 실질가격으로 20% 이상 하락하였다.

한편, 칠레의 과일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코첼라밸리(Coachella Valley)의 포도생산자가 칠레산 포도에 대한 덤핑소송을 제기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제소를 미국 재무부(USDT)가 수용할 지에 대해서는 이 제소에 의해 칠레 생산자가 받는 직접적인 영향과는 별도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왜냐하면, 코첼라밸리의 생산자는 업계의 8%를 차지하는데 불과하지만 생산자측은 한 시기의 수개월간은 훨씬 큰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이와 같은 덤핑의 판단 기준이 승인되면 다른 많은 생산자그룹도 제소의 길이 열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관심이 높다.

資料: <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2001...>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세계 식료수급 정보

세계 곡물 수급 및 가격 동향 (2001. 7)

세계 곡물 수급 및 가격 동향 (2001. 7)

1. 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1.1. 전체 곡물

2001/02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이 2000/01년도 보다 늘고, 소맥이 약간 줄어들어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18억 4,123만톤이 될 전망이다. 2001/02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4억 8,780만톤과 생산량을 합친 23억 2,903만톤으로 전망되어 전년보다 약 2,150만톤이 줄어들 전망이다.

2001/02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1.5% 늘어난 18억 9,070만톤으로 전망된다.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도 전년대비 0.8% 늘어난 2억 6,131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교역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가 될 전망이다.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4,947만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1/02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10.1% 감소한 4억 3,833만톤 정도인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세계 전체 곡물의 수급동향

단위: 백만톤

	1999/00	2000/2001 (추정)	2001/02(전망)		변동율(%)	
			2001. 6	2001. 7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872.44	1,830.56	1,846.68	1,841.23	0.6	△0.3
공 급 량	2,395.78	2,350.50	2,333.31	2,329.03	△0.9	△0.2
소 비 량	1,875.85	1,862.69	1,893.88	1,890.70	1.5	△0.2
교 역 량	281.15	259.18	264.23	261.31	0.8	△1.1
기 말 재 고 량	519.93	487.80	439.42	438.33	△10.1	△0.2
기말재고율(%)	27.7	26.2	23.2	23.2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6, July 11, 2001.

1.2. 쌀

2001/02년도 쌀 생산량은 2000/01년와 비슷한 3억 9,573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쌀 생산량은 늘어나지만 중국과 일본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01/02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1.2% 늘어난 4억 573만톤으로 전년보다 472만톤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1/02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대비 1.7% 줄어든 2,300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5.8%로 전망된다. 수출량은 전년대비 태국 109%, 베트남은 68% 증가 할 전망이다.

태국의 재고량은 늘어나지만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의 재고량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어서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7.3%가 줄어든 1억 2,720만톤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말재고율은 31.4%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국제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단위: 백만톤

	1999/00 (실적)	2000/2001 (추정)	2001/02(전망)		변동율(%)	
			2001. 6	2001. 7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408.22	395.49	396.41	395.73	0.1	△0.2
공 급 량	541.26	538.20	530.80	532.93	△1.0	0.4
소 비 량	398.54	401.01	404.50	405.73	1.2	0.3
교 역 량	24.06	23.41	24.00	23.01	△1.7	△4.1
기 말 재 고 량	142.71	137.20	126.29	127.20	△7.3	0.7
기말재고율(%)	35.8	34.2	31.2	31.4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6, July 11, 2001.

1.3. 소맥

세계 밀 생산량은 2000/01년 5억 7,853만톤에서 2001/02년에는 전년대비 1.9% 감소한 5억 6,780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호주와 러시아의 생산량은 증가할 전망이나 미국, 캐나다, 중국, 유럽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2001/02년도 세계 밀 소비량은 2000/01년 5억 8,861만톤보다 약 394만톤 늘어난 5억 9,255만톤 수준이 될 전망이다. 밀의 국제 교역량은 1999/00년 1억 3,511만톤까지 늘어났으나, 2000/01년에는 1억 2,330만톤으로 줄어들었다가 2001/02년에 1억 2,709만톤으로 약간 늘어날 전망이며, 생산량에 대한 교역량의 비율은 22.4%가 될 전망이다.

2001/02년에는 소비량이 증가하고 생산량의 감소하여 기말 재고량은 전년대비 15.7% 감소한 1억 3,300만톤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과 EU의 재고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어서, 기말재고율도 전년의 26.8%에서 22.4%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국제 소맥 수급 동향

단위: 백만톤

	1999/00 (실적)	2000/2001 (추정)	2001/02(전망)		변동율(%)	
			2001. 6	2001.7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586.78	578.53	569.35	567.80	△1.9	△0.3
공 급 량	761.41	746.36	726.01	725.55	△2.8	△0.1
소 비 량	593.58	588.61	593.75	592.55	0.7	△0.2
교 역 량	135.11	123.30	127.63	127.09	3.1	△0.4
기 말 재 고 량	167.83	157.75	132.27	133.00	△15.7	0.6
기말재고율(%)	28.3	26.8	22.3	22.4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6, July. 11, 2001.

1.4. 옥수수

2001/02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5억 9,743만톤으로 전년보다 2.1%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중국과 아르헨티나의 생산량은 약간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의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2001/02년의 소비량은 전년대비 2.2% 증가한 6억 1,186만톤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옥수수의 교역량의 경우 전년보다 0.1% 줄어든 7,811만톤이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13.1%로 전망된다. 전체 교역량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4.2%에 이를 전망이다.

2001/02년 옥수수의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대폭 줄어든 1억 4,195만톤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 유럽의 기말재고량은 늘어나지만 중국과 미국의 기말재고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2.9% 포인트 줄어든 23.2%가 될 전망이다.

표 4 국제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9/00 (실적)	2000/2001 (추정)	2001/02 (전망)		변동율(%)	
			2001. 6	2001. 7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606.45	584.88	598.53	597.43	2.1	△0.2
공 급 량	775.57	755.25	756.48	753.81	△0.2	△0.4
소 비 량	605.21	598.86	613.36	611.86	2.2	△0.2
교 역 량	85.56	78.17	79.24	78.11	△0.1	△1.4
기 말 재 고 량	170.37	156.38	143.12	141.95	△9.2	△0.8
기말재고율(%)	28.2	26.1	23.3	23.2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6, July. 11, 2001.

1.5. 대두

세계 대두 생산량은 2001/02년에 사상 최대인 1억 7,72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과 아르헨티나의 생산량은 약간 줄어드나 미국과 브라질의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대두 소비량은 전년보다 4.5% 늘어난 1억 7,784만톤으로 전망된다.

2001/02년 세계 대두 교역량은 전년보다 4.8% 증가한 5,498만톤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1.0%에 이를 전망이며, 전 세계 수출량에서 미국이 50.2%, 브라질이 27.0%, 아르헨티나가 13.0%의 비중을 차지하여 이들 세 국가의 수출비중이 90.2%에 이를 전망이다.

2000/01년 대두의 기말 재고량은 2,821만톤으로 추정되어 전년의 2,847만톤과 비교하여 26만톤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소비량이 늘어나 기말재고율은 전년의 16.7%에서 15.9%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국제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실적)	1999/00 (추정)	2000/01(전망)	변동율(%)
			2001. 7	전년대비
생 산 량	159.86	172.11	177.20	3.0
공 급 량	186.50	198.90	205.67	3.4
소 비 량	160.72	170.23	177.84	4.5
교 역 량	46.64	52.44	54.98	4.8
기 말 재 고 량	26.79	28.47	28.21	△0.9
기말재고율(%)	16.67	16.7	15.9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6, July 11, 2001.

2. 국제 곡물 가격 동향 및 전망

2.1. 쌀

중립종(자포니카 계) 쌀의 국제가격은 1998년 9월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9년 7월에는 사상최고치인 톤당 556.66달러를 기록하였다. 이후 하락하여 2001년 7월 국제가격(7월 6일 기준)은 전년대비 36.2%, 전년 동월대비 39.0% 하락한 톤당 275.58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1995년 여름이래 최저수준이다.

태국산 장립종 쌀 가격은 1999년 10월 톤당 221.80 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조금씩 상승하여 2000년 2월 253.25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계속 하락하여 5월에는 톤당 210 달러 수준이었으나 2001년 7월(7월 6일 기준)에는 전년대비 15.0% 하락한 톤당 180 달러 수준이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9.5% 낮지만 전월보다는 2.0% 상승한 수준이다. 현재 쌀재고량이 충분

하지만 소비량이 늘어나고 교역량은 약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중립종 쌀 가격은 약세장이 이어지고 장립종의 경우 약간 상승할 전망이다.

2.2. 소맥

밀의 국제가격은 1996년 5월 톤당 218.11 달러까지 폭등한 이후 1997/98년의 대풍작에 따라 1997년에는 153.1 달러로 하락하였다. 가격하락에 따라 1998/99년의 식부면적이 줄어들어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1998/99년의 국제 밀 가격은 120 달러로 더욱 하락하였다.

국제 밀 가격은 1999년 12월에 톤당 112.44 달러까지 떨어졌으나, 2000년 상반기에는 110~118 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0년 8월에는 톤당 102.92 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상승하여 2001년 7월(7월 6일 기준) 현재에는 119.05 달러로 이는 전년보다 8.0%, 전년동월보다 12.0% 높은 수준이지만 전월보다는 0.6%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기말재고량이 줄어들고 소비량과 교역량이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3. 옥수수

1996년 5월 톤당 209 달러까지 폭등했던 옥수수 국제가격은 연속된 풍작으로 1999년 7월에는 85.42 달러까지 폭락하였으나 이후 조금씩 회복하여 2000년 5월에는 톤당 102.67 달러로 상승하였다.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0년 8월에는 톤당 80 달러로 하락함으로써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01년 7월(7월 6일 기준) 현재 톤당 88.48 달러 수준으로 전년보다는 3.8% 낮은 수준이지만 전월보다는 3.2% 상승하였다. 앞으로도 기말재고량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국제가격은 이 수준에서 약상승할 전망이다.

2.4. 대두

대두 국제가격은 1997년 5월에 톤당 331달러(미국 Gulf, 2등급, f.o.b.)까지 상승하였으나, 1997/98, 1998/99년의 연이은 풍작에 따라 1998년에 234.33 달러, 1999년 7월에는 168.98 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0년 5월에는 톤당 211.72 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부터 국제가격이 하락하여 2000년 8월에는 톤당 178.87 달러까지 하락하다가 12월에는 196.98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2001년 7월(7월 6일 기준) 현재에는 192.91 달러로 전년대비 0.6%보다는 하락하였지만 전년동월 대비 6.9%, 전월보다는 6.3% 상승하였다.

2001/02년도에는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지만 소비량과 교역량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고 기말재고량이 줄어들어 대두의 국제가격은 상승할 전망이다.

표 6 국제 곡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FOB

품 목	2000 평균	2000. 7	2001. 6	2001. 7	증감률(%)		
					전년 대비	전년 동월	전월 대비
쌀(중립종)	431.70	451.94	275.58	275.58	△36.2	△39.0	0.0
쌀(장립종)	211.68	199.00	176.50	180.00	△15.0	△9.5	2.0
소 맥	110.28	106.34	119.72	119.05	8.0	12.0	△0.6
옥수수	91.94	81.32	85.71	88.48	△3.8	8.8	3.2
대 두	193.98	180.50	181.46	192.91	△0.6	6.9	6.3

주: 쌀 중립종은 U.S. California, Medium 1등급, 장립종은 태국 1등급 가격임. 소맥은 US Portland, White Wheat 1등급 가격이며, 옥수수와 대두는 US Gulf 2등급 가격임.

표 7 세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9/00 (실적)	2000/01 (추정)	2001/02(전망)		변동율(%)	
			2001. 6	2001. 7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541.26	538.20	530.80	532.93	△1.0	0.4
기초재고량	133.04	142.71	134.39	137.20	△3.9	2.1
생산량	408.22	395.49	396.41	395.73	0.1	△0.2
미국	6.50	6.10	5.91	6.16	1.0	4.2
타이	16.50	16.83		16.83	0.0	
베트남	20.75	20.82		21.00	0.9	
인도네시아	33.45	32.00		32.50	1.6	
중국	138.94	131.54		130.20	△1.0	
일본	8.35	8.64		8.50	△1.6	
수입량	21.27	21.84	23.00	21.71	△0.6	△5.6
인도네시아	1.50	1.30		1.60	23.1	
중국	0.28	0.30		0.31	3.3	
일본	0.64	0.73		0.70	△4.1	
소비량	398.54	401.01	404.50	405.73	1.2	0.3
미국	3.85	3.87	3.91	3.94	1.8	0.8
태국	9.60	9.99		10.00	0.1	
베트남	16.77	16.96		17.10	0.8	
인도네시아	35.40	35.88		36.36	1.3	
중국	133.76	134.34		136.11	1.3	
일본	9.45	9.30		9.30	0.0	
수출량	24.06	23.41	24.00	23.01	△1.7	△4.1
미국	2.80	2.65	2.41	2.57	△3.0	6.6
태국	6.55	6.70		14.00	109.0	
베트남	3.37	4.00		6.70	67.5	
기말재고량	142.71	137.20	126.29	127.20	△7.3	0.7
미국	0.87	0.78	0.70	0.77	△1.3	10.0
태국	1.41	1.55		1.68	8.4	
인도네시아	6.37	3.80		1.54	△59.5	
중국	98.50	94.20		86.60	△8.1	
일본	1.83	1.30		1.10	△15.4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6, July 11, 2001.

표 8 세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9/00 (실적)	2000/2001 (추정)	2001/02(전망)		변동율(%)	
			2001. 6	2001.7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61.41	746.36	726.01	725.55	△2.8	△0.1
기초재고량	174.63	167.83	156.66	157.75	△6.0	0.7
생산량	586.78	578.53	569.35	567.80	△1.9	△0.3
미국	62.57	60.51	52.83	53.72	△11.2	1.7
호주	25.01	21.17	23.00	21.50	1.6	△6.5
캐나다	26.90	26.80	26.00	25.00	△6.7	△3.8
EU15	96.80	104.92	97.95	96.14	△8.4	△1.8
중국	113.88	99.60	96.00	96.00	△3.6	0.0
러시아	31.00	34.45	37.00	37.50	8.9	1.4
수입량	130.83	122.72	126.00	126.06	2.7	0.0
EU15	25.09	24.90	24.98	25.28	1.5	1.2
브라질	7.56	7.70	7.50	7.30	△5.2	△2.7
북아프리카	16.61	16.80	16.60	16.60	△1.2	0.0
파키스탄	2.10	0.15	1.00	0.50	233.3	△50.0
인도	1.37	0.10	0.10	0.10	0.0	0.0
러시아	5.08	1.50	1.00	1.00	△33.3	0.0
소비량	593.58	588.61	593.75	592.55	0.7	△0.2
미국	35.38	36.06	35.52	34.89	△3.2	△1.8
EU15	87.21	92.44	90.00	89.15	△3.6	△0.9
중국	115.62	114.00	113.00	113.00	△0.9	0.0
파키스탄	20.45	20.50	21.00	21.00	2.4	0.0
러시아	35.37	35.15	36.50	37.00	5.3	1.4
수출량	135.11	123.30	127.63	127.09	3.1	△0.4
미국	29.65	28.99	27.22	28.58	△1.4	5.0
캐나다	19.17	17.50	17.50	16.50	△5.7	△5.7
EU15	38.34	35.70	34.20	33.70	△5.6	△1.5
기말재고량	167.83	157.75	132.27	133.00	△15.7	0.6
미국	25.85	23.76	27.44	26.48	11.4	△3.5
EU15	14.41	16.10	14.83	14.67	△8.9	△1.1
중국	65.16	50.56	35.06	35.06	△30.7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6, July 11, 2001.

표 9 세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9/00 (실적)	2000/01 (추정)	2001/02(전망)		변동율(%)	
			2001. 6	2001. 7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75.57	755.25	756.48	753.81	△0.2	△0.4
기초재고량	169.12	170.37	157.95	156.38	△8.2	△1.0
생산량	606.45	584.88	598.53	597.43	2.1	△0.2
미국	239.55	253.21	243.22	241.18	△4.8	△0.8
아르헨티나	17.20	16.00	17.00	16.50	3.1	△2.9
EU15	37.24	38.44	39.76	39.86	3.7	0.3
멕시코	19.24	17.70	19.00	19.00	7.3	0.0
동남아시아	14.61	14.47	15.08	15.08	4.2	0.0
중국	128.09	106.00	115.00	115.00	8.5	0.0
수입량	79.62	78.61	77.64	77.64	△1.2	0.0
EU15	10.87	10.78	10.88	10.88	0.9	0.0
일본	16.12	16.00	15.70	15.70	△1.9	0.0
멕시코	4.91	5.50	6.00	6.00	9.1	0.0
동남아시아	4.50	4.50	4.80	4.60	2.2	△4.2
한국	8.69	8.00	7.50	7.50	△6.3	0.0
소비량	605.21	598.86	613.36	611.86	2.2	△0.2
미국	192.48	198.51	196.60	197.11	△0.7	0.3
EU15	38.75	39.91	40.85	40.95	2.6	0.2
일본	16.32	16.05	15.70	15.70	△2.2	0.0
멕시코	23.65	24.00	25.30	25.00	4.2	△1.2
동남아시아	18.99	19.01	19.43	19.23	1.2	△1.0
한국	8.40	8.30	7.60	7.60	△8.4	0.0
중국	118.00	120.00	123.00	123.00	2.5	0.0
수출량	85.56	78.17	79.24	78.11	△0.1	△1.4
미국	49.21	46.36	50.80	50.17	8.2	△1.2
아르헨티나	11.96	11.00	11.30	11.30	2.7	0.0
중국	9.94	7.00	3.00	2.00	△71.4	△33.3
기말재고량	170.37	156.38	143.12	141.95	△9.2	△0.8
미국	43.63	52.15	48.08	46.43	△11.0	△3.4
아르헨티나	0.45	0.47	0.48	0.48	2.1	0.0
EU15	4.11	4.70	5.71	5.77	22.8	1.1
중국	102.31	81.46	70.66	71.66	△12.0	1.4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6, July 11, 2001.

표 10 세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9/00 (실적)	2000/01 (추정)	2001/2002(전망)	변동율(%)
			2001. 7	전년대비
공급량	186.50	198.90	205.67	3.4
기초재고량	26.64	26.79	28.47	6.3
생산량	159.86	172.11	177.20	3.0
미국	72.22	75.38	79.88	6.0
아르헨티나	21.20	26.00	25.50	△1.9
브라질	34.20	37.50	38.00	1.3
중국	14.29	15.40	15.00	△2.6
수입량	47.65	52.24	55.36	6.0
EU15	15.66	16.82	0.11	△99.3
일본	4.90	4.84	4.85	0.2
중국	10.10	12.50	14.00	12.0
소비량	160.72	170.23	177.84	4.5
미국	47.43	49.35	49.91	1.1
아르헨티나	18.02	18.73	19.53	4.3
브라질	23.19	23.75	25.00	5.3
EU15	16.59	16.59	17.60	6.1
일본	5.08	5.08	5.11	0.6
중국	27.00	27.00	29.70	10.0
수출량	46.64	52.44	54.98	4.8
미국	26.49	27.08	27.62	2.0
아르헨티나	4.13	6.00	7.10	18.3
브라질	11.16	14.00	14.80	5.7
기말재고량	26.79	28.47	28.21	△0.9
미국	7.90	6.93	9.38	35.4
아르헨티나	5.61	7.28	6.55	△10.0
브라질	7.65	8.20	7.20	△12.2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6, July 11, 2001.

(성명환 mhsung@krei.re.kr 농산업경제연구부)
(이정연 ljj1217@krei.re.kr 농산업경제연구부)

M45-12 세계농업뉴스 제12호 (2001. 8)

등 록 제5-10호 (1979. 5. 25)

인 쇄 2001년 8월

발 행 2001년 8월

발행인 강정일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224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경희정보인쇄(주) 02-2263-7534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